朝鮮日報 夕刊 十一日(月)

水兵事件의波紋

日中開戰說로 上海人心大不安

中央軍上海附近集結과日本軍의九州集結로

續續租界內로避難

【上海十日發聯合】八萬乃至十萬이라고하는 中央軍은 過般來滬沽甬鐵道에 沿하야 移動을 開始하야 上海市周邊停戰協定線에까지 集結하여잇는데 他方大演習으로 日本陸軍이 九州에 集結하여잇는結果 日中兩國開戰說마가 流布되여잇는 此際 水兵狙擊事件發生으로 上海市內의 人心은 極度로 動搖되여 蠢言百出하는 現狀이다 特히 租界外의 中國人은 上海事件을 想起하고 恐慌의 念을이르켜 雜路한 北四川路大道의 中國人避難民은 黃包車(人力車) 추럭 等에 家財를積載하고 租界로 續續드러밀녀 街衢는 非常히 雜踏하여잇다 그리고 共同租界와의 境界附近은 맛치戰時狀態와如한 緊張과亢奮이 漲溢되여잇다

避難에關聯한沖野參謀言明

【上海十日發聯合】水兵狙擊事件으로 中國人은 極度로 不安에陷하야 租界內로 避難하는 者續出하고잇는 事實에 關聯하야 陸戰隊沖野參謀는 十日左와如히 言明하엿다

中國民衆의 避難은 軍으로서 何等關知할바가안이나 蠢言百出하야 日本側이 即時行動을 開始하는것과가튼 印象을 주고잇다고하면 困難하다 日本側으로서는 上海市政府當局에 對하야犯人逮捕에 協力을要請한以外 期限附要求와如한 何等特別한 要求는提出한일은 업다

(…)잇는 言明이잇슴에도 不拘하고 上海事變의 生生한 記憶이 잇는 閘北, 吳淞一帶의 中國人은 十日早부터 人心은 不安에 쌔히여 人力車, 一輪車等에家具를 滿載하고 中國街로부터租

第三艦所屬砲艦 『安宅』上海로急行

【上海十日發聯合】水兵狙擊事件과 人心不安에備하야 在留日本人保護에 當하기爲하야 第三艦隊司令長官 百武中將은 砲艦安宅을 急遽 上海로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 同艦은 十日午後二時 上海에到着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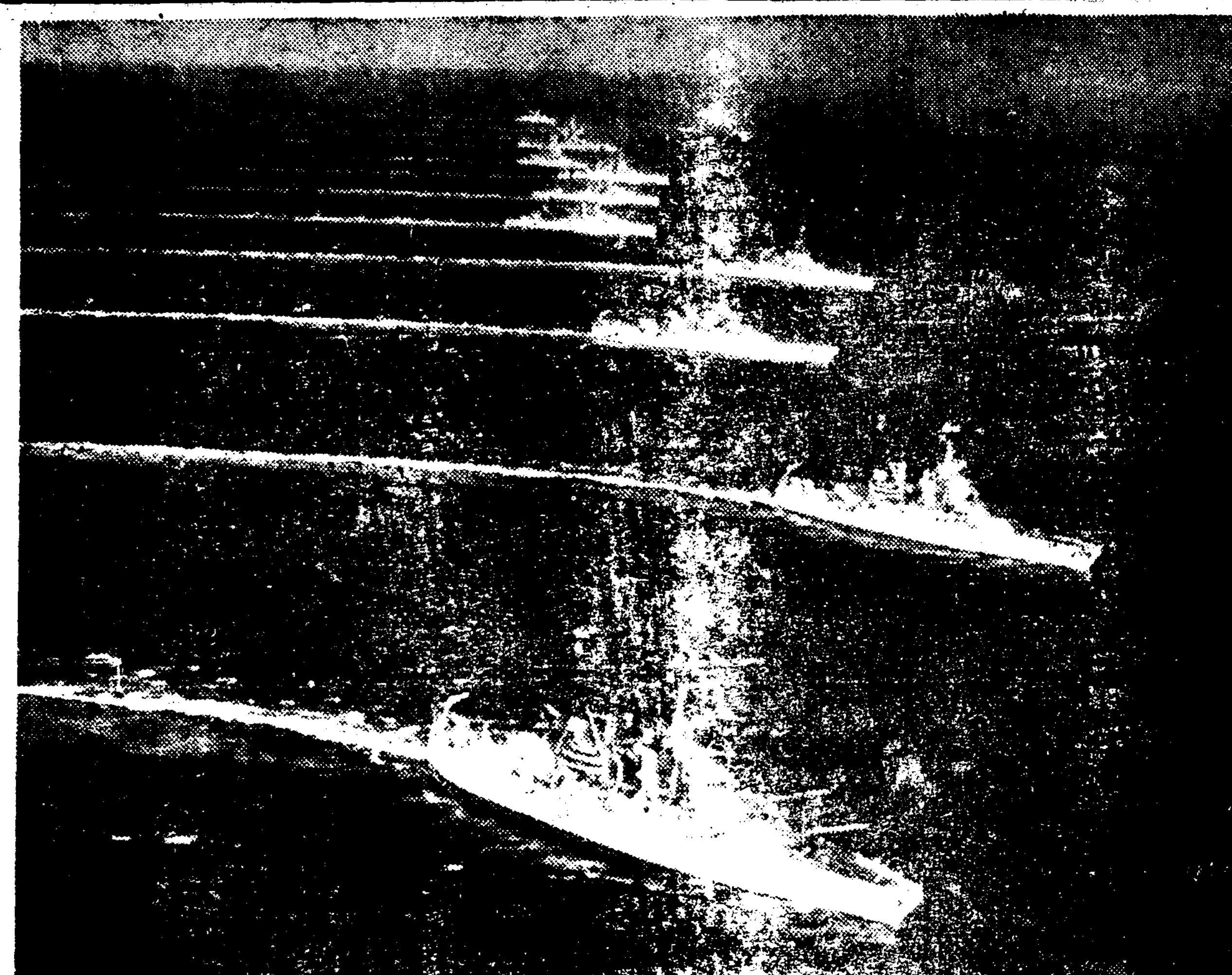
【上海十日發聯合】第三艦所屬砲艦安宅은 十日午後三時에 入港하엿다 杉坂艦長은 直時 陸戰隊代表沖野武官의 訪問을 밧고今朝의 狙擊事件의 報告를 聽取하엿다

租界內에逃亡 中國人檢擧困難

人心惡化漸次濃厚

【上海十日發】日本側의 愼重한態度와 中國側의 親日分子의誠(…)

界로 避難하는者가 끈치지아니하야 (…) 光景을 呈하여잇다 이에對하야 日中兩當局과 工部局에서도 極力人心 安定을 圖하고잇스나 中國側의 人心惡化는 漸次濃厚하게되고 잇다



寫眞說明 大演習을 終了하고 산듸에고海軍根據地에 集結中인 米國海軍一萬噸巡洋艦群이 去十月廿八日 大觀艦式을 압두고 艦隊陣形運動의 演習을 練習中에 撮映한것이다

宋氏現狀打破의 重大決意鞏固

熊斌氏虛事로歸還?

【北平十日發電通】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는 北中情勢急迫에 對하야 現狀대로는 到底히 局面收拾이 不可能함을 痛感하고 現狀打破의 重大決意를 하게되엿다

【北平十日發電話】蔣介石氏의 命을受하고 北上한 參謀次長熊斌氏는 宋哲元, 商震氏等과 會見하고 懷柔에努力하엿스나 奏效치못하고 十日午後五時 北平發 天津에向하엿다 氏는 天津市長蕭振瀛氏 其他要人과 會見하고 急迫한 北中事態收拾策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할터인데 銀國有令의 公布로 激發한 北中住民의 國民政府에對한 反對氣運은 이미 直接行動에 展開하고잇서 벌서 아모進捗가업슴으로 急遽 南京에 歸하야 蔣介石氏에對하야 北中事態는 인제南京政府의 힘으로는 到底히 收拾할수 업는實情을 報告하는수 박게업다고觀測된다

水兵狙擊犯人은 汪氏狙擊犯과同系?

【上海十日發電通】陸戰隊員狙擊犯人에 對하여는 被害者中山一等水兵이 死亡하엿기때문에 現場에 遺棄한 三三〇號모젤式拳銃彈丸及 케이스等을 唯一한證據로 目下 此를 陸戰隊에서 詳細究明하야 出所를 밝키기에努力하고잇는데 最近 上海中國人間에도 日中開戰說과 蔣介石의 排日强硬決意等 蠢動不穩한 排日言動이 流布되여잇는바 反汪分子 共產黨員等이 結託한 一派인것이 明白하게되엿슴으로 今回의 事件은 汪精衛氏狙擊犯人과 同一系統인 此等一派가 對日紛擾의 端緒를만들려하는 陰惡한 陰謀이라고觀測되다

親英蘇容共政策으로 蔣、對日開戰畫策?

北中實力派對策에苦心

【天津十一日發電通】某方面의入報及 其他의 諸情報를 綜合하면 蔣介石氏는 二、三月前까지는 表面日本과의 衝突을 細避할 方針이엿스나 其後蘇聯과의 連絡이 緊接하게되여 마츰내北中을 威脅하면서 日滿兩國에 抗할 決意를 鞏固히 하게되엿다 그의 이決意는 日滿兩國에 對하야 敵愾心에 불타고잇는 一方 對內的으로 失脚할 憂慮가 漸次 濃厚化하는데 鑑하야 假面을 버서버리고 斷然 抗日의 强硬工作으로 轉化하게되엿는데 其裏面에는 幾多의 重要複雜한問題가 潛在되다 即

一、蘇聯이 北鐵讓渡에 依하야財政的으로 얼마큼 餘裕가 생기게 되엿고 東北政策轉換에 合作할 駐蘇大使 顏惠慶의策動이 成功되것

一、歐洲問題의 見解가 서게되엿슴으로 英國이 積極的으로 對中援助를 行하야 利權獲得에 進出한것

一、右英蘇兩國을 巧妙히 操縱하야 以夷制夷의 政策으로나아가는것이 有利하다고 認定하게되엿것

等의 國際的情勢에 利用하는것은 勿論 더욱 蔣介石及 그를 圍繞한 强硬派는 伊太利와 에디오피아開戰後 飛行機를 비롯하야 近代兵器를 거의 가지지못한 에디오피아도 그만큼 頑强한 抵抗을 試驗하고 잇는데 刺激되여 日本은 다무엇이냐라는 自信이 强하게 되기때문이다 勿論 今回의 幣制改革에잇서 英國으로부터 絕對的支持를 밧고잇는것은 蔣介石으로하여곰 以夷制夷政策의 專心遂行의 決意를 더욱 强硬하게한것이다 蔣介石의 이方略은 爲先 陝西省及 寧夏省에잇는 共產軍을 討伐하면서 綏遠省으로 侵入한然後에 第二段으로 察哈爾省及 河北省으로 侵入케하야 有事成功하면 그討伐을 名目으로 中央軍을 派送하야 第三段工作으로 熱河方面으로부터 滿洲國을 脅威하려는것이다 그리고 이計畫은 今回의 幣制改革에 際하야 英國이 强力한 支持를 不惜하는 (…)裏面인데 近來 共產黨의 勢力이 去益活潑하게 되것은 以上의 情勢에 合流하는것이라는 斷定도 나리게 되엿슴으로 右에 鑑하야 宋哲元氏以下 北中의 實力派는 往年의 暗鬪를 不計하고 자조平津間을 往來하면서 積極的으로 共同防衛對策을 考究하고 잇는바 民國은 數日後에 民衆的結成을 보게 되리라고 傳한다 財政權의 一部가 實質的으로 獨立되것과 함게 그推移는 異常한 注目을 惹起하고잇다

斷乎한嚴重抗議 外海兩省意見一致

停戰協定違反이明白한境遇에는 海軍獨自的行動講究

【東京電話聯合】上海에잇서 日本水兵狙擊事件에 關하야 日本海軍當局은 本事件과 如히 今回 英中借款 其他 微妙한 國際關係에잇는 此際 日本水兵狙擊事件이 發生한것은 極히 惡性의 排日行爲라고 看做하고 推移를 重視하고잇는데 十日 午前 公報를 中心으로 外務省東亞局守島第一課長과 會見하고 意見을 交換한結果 上海 中國當局과 現地에잇서 海軍의 荒木陸戰隊司令官에게 犯人逮捕를 交涉케하고 一方 事件은 明白히 中國의 所爲라하야 十一日 다시 海軍省의 關係者와 協議한後 國民政府의 責任을 問하고 아울러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기로 一決하엿다 따라 이旨을 有吉大使에 對하야 訓令을 發하야 外交交涉으로 移牒하기로되엿다

【上海十日發電通】今回事件이萬若日本軍에 對한 挑戰的行爲인것이 明白히되면 上海停戰協定의 違反으로 九日荒木陸戰隊司令官이 表明한態度와가티 日本海軍은 獨自의立場에서 斷乎한 行動을 取할것으로 事態推移에 絕大의 注目을 갓게되엿다

中山一等水兵 陸戰隊葬

【上海十日發電通】狙擊된 中山一等水兵의 陸戰隊葬은 十一日午後四時부터 陸戰隊本部에서 荒木司令官以下가參列하야 執行하기로 되엿다

人事·集會

◀丸山虎之助氏(法政新聞社長)新任人事次來社

◀庄司文雄氏(同編輯局長)同上

大元帥陛下 演習을御統裁

【都城電話電通】大演習第三日— 戰機는이제 宮崎縣에옴기어 皇祖御發祥의 靈地에 錦旗는進發되엿다 大元帥陛下께압서는 此日 高城野外統監部及 都城에서 非常時日本國防의 第一線을 직히는 南九州男兒의 練武를 御統裁하압시엇는데 十日夜 演習再行後 熊本騎兵第六聯隊를 中心으로한 若干의後衛部隊를 남기고 夜半부터後退하든中이든 香椎東軍主力은 山岳地帶를 利用하야 十一日早朝高城山口의 線에達하야 正午드되어 都城을 睥睨할만한 有利한 陣地를 占하엿다 此에對하야各路線을 徹宵追擊中이든 西軍은 決死的反擊을 하면서 各山岳의險路를 果敢히前進, 東軍의 前面에 達하기는 十一日午後四時가 지나서이라고보인다

療養諸團體에 金一封御下賜

【東京電話聯合】皇太后陛下께압서는 今般左記療養所諸團體에對하야 各各金一封을 御下賜하압시엇다

拓務省所管

小鹿島更生園(本年만)

大邱癩病院

釜山癩病院

麗水愛養園

(以上本年부터 向後五個年間年年下賜하실터이다)

現銀流通禁止反對에 一大民衆運動勃發?

重大事態惹起의形勢

【北平十日發電通】北中人民의現銀流通禁止 反對熱은 逐日激甚하게되여 特히 河北省에서는 一般農民이 悲痛한 決意로써 南京政府의 命令을 撤回식히려하야 北平·天津以北의 停戰地區에 接近한 各縣과 平壤鐵道沿線 各縣에 撤回를 要求하는 一大民衆運動이 勃發할 氣運이 濃厚하게 되엿는데 各地方官憲도 利害를 갓치하는데서 此等運動을 拱手傍觀하고잇다 一兩日中에는 重大事態가 突發하게될形勢를 釀成하고잇다

精神作興에關한 宇垣總督의訓示

國民精神作興에關한 詔書는 大正十二年十一月十日 關東震火災에 뒤니여 國民이 其方途에迷하야 자칫하면 委靡沈滯되여 遊惰放逸로 逸走하려하는 弊害를 警戒하압시기爲한 御軫念에서 渙發하옵신 것인데『國家興隆의 本은 國民精神의 剛健에 在하다』고 宣明하압신 聖詔의御訓은實로 雷霆과如히 時人의 머리를 때리고 本來의 國民精神을 喚起하야 저歐米人이 奇蹟視하는 大復興事業을 成就하야 國力과 人意가 旺盛한것을 立證한것이다 先帝께서도 또 詔書에『上下協戮振作할 更張의時』라고宣明하시엿는데 今上陛下께압서도 亦是國際聯盟離脫에 關한 詔書에『此는 正히 擧國振張의 時』라고 말삼하시와 聖旨一貫 國民을 激勵하압신것으로 吾等國民은 이즈려하여도 이즐수업는 이 記念日에 當하야 既往을 回顧하고 將來를 想起하야 上下一體 克己忍苦의 修練을 集積하고 剛健한 精神을 振起하야 勇往邁進하야서 國家興隆의 根本을 培養하야 此非常時局을 突破하야 皇國의 眞使命을 達成하기를 期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我朝鮮은 今年으로써 始政二十五週年을 꼿맛고 其光輝잇는治績에對하야 官民의 意氣가크게 發揚하야 歡喜聲이 半島天地에 遍滿한 感이잇다 我等은 합부로 過去의 成果에만 陶醉하야 心志를 弛緩케 할것이 아니라 더욱 心氣를 새롭게하야 크게 理想을 闡明하고 協戮邁往하야 大成을 將來에 期할 覺悟를 要하지안흐면안될것이라고 思하다 詔書奉讀式은 이것으로써 四回 今日을 中心으로 全朝鮮이 一齊히 民心作興週間을 設定하야 國民精神의 鼓舞作興에 資케할 各種施設을 實行하고 잇는것이다 各位總督府에 奉職하는 者는 特히 戒愼自重, 互相其職分에 恪循하야 浮華를排斥하고 質實을 尊尙하고 模範을 示하고 創造를 日進日新 會適의 運에 乘하야 更張의 期를 啓하고 共存共榮을 圖하야 桑梓一家의 實을 擧하야써 詔書의 聖旨에 奉副하기를 期하기를 切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昭和十年十一月十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米國海軍精銳 空前大編隊飛行

【호놀룰루九日發聯合】米國海軍精銳飛行艇四十一機는 레네스·호소이레잉그大佐 指揮下에하와이時間 午前八時二十九分(日本時間十日午前三時五十九分)眞珠灣에서 離水하야 西方約一千哩의 프렌치프리게트島로向하야 空前의 大編隊飛行壯途에 올랏다 飛行艇隊는 프렌치·프리게트島에到着한後 다시 機首를轉하야 南方一千百哩의 우욘손島로 飛行 三角코스를畫하야 十九日호놀룰루로 歸還할 豫定이다

레이드로스北中視察

【南京十日發聯合】歸國說이잇든 레이드로스氏는 當分間 中國에 滯在하기로 決定한模樣인데 一兩日中에 南京에 赴하야 中央政府當局과會見하고 重要協議를 行한後 北上하야 天津, 北平地方을 觀察한後 再次漢口로 赴할豫定인데 同氏는 英大使와同行할터이다

國際全貌

待機不發의列國

—에디오國의一條活路—

(七) 安在鴻

×

하일레·셀라세皇帝는 메네릭帝의 皇統을 繼承한 분이라 메네릭帝는 『쇼아』國의 國王으로 全에디오피아의 皇權을 總攬한터이니 그事情은 上文에 表示된바잇다 『쇼아』니 『로소리니』의 伊太利는 스스로 에디오피아를 机上肉으로다루되 그 分割 管制의 方法까지 마련하엿스나 大戰이 끗난지 十六七年에 反動의猛烈은 오르드되어 그最高位에 達하야 그 再併呑의 經綸은 거의 最後的인 局面을가지고 進하고잇슴 가트다 아즉未定한 試案이것스되 伊太利의 和解案이라는者는 (1)에디오피아帝國領土를 二分하야 에디오本部(註, 元쇼아王國)와 非아마릭 領域으로함 (2)非아마릭領域은 伊太利政府의委任統治 乃至 專管領域으로함 (3) 티그레州는 伊太利領土로함을 確認할것 (4) 에디오피아軍備制限 (5)에디오피아本部의 行政에對한 聯盟의 指導等이 그要目이오 하일레 셀라세皇帝는 四十年來의新帝都인 아지쓰아베바를 떠나 그의 歷史的 舊都인 츠아나湖의 東岸에잇는『데브라·다보르』城에 遷都하리라고 까지 觀測談을 發表한바 잇다 이로써 伊太利의 遠圖를 邀擊하려니와 最終의 열쇠가 에디오피아自身의 最後的인 抗戰에 잇는것은 두말이업다 그들 一千萬人의 決死的인 抗爭이 時日持久써 伊의疲弊를 기대리다하면 伊가또한 그併呑의野慾을 全的으로 禁止할수업슬것이다

×

伊太利의 意圖하는바는 에디오피아의 全國을 領域으로하고 『츠아나』湖의 濱沿한水域을 東으로 거더러 스타 伊領『소마릴렌드』와의 平野에서 大量의綿花耕作함으로써 每年二百萬錦의 綿花輸入을 防止하고 餘의 連接을 보러함이니 이것이 英帝國과의 衝突에서와 에디오피아의 抗戰에서 中途 그目的을 修正함을 要하게 될바일것이다 英은 아제 總選擧에 熱中하야 對外問題에는 暫時閑却된事情이나 英의强硬이 伊를 强壓코저함은 무론이오 더욱히 戰亂의危機를 가장嫌하는 佛共和國의 弱點을잡어 그로하야금 對伊制裁에 相反援助함을 轉然히 强制코저하는 心法에서 나와잇다고 볼것이니 이點은 『에디오』가 도리어 一條의活路를 엇게될 機微로서 다행히 全國的 覆沒을免케될 光明을 보는 바이오 루스벨트의 米合衆國도 自動的인 對伊禁輸에 떠러지나 英伊間의 和協問題에 對하야 혹은 一貫의힘을 도와줄공로 할것이다 어찌튼 지금에 잇서서 伊太利가 에디오피아에서 一定한 領土의 獲取로써 그目的을 꾸밈도시 滿足한것으로 兼行할수업스니 에디오는 結局 總括될聯盟의 斡旋을 가지고 英伊가 어느程度로 妥協되느냐에 잇는것이라고 調整은 된다하면 問題의 核心은 차라리 極東方面에 옴기게될것이리라 方今에는 東西의時局이 騷擾的으로 急轉하야 大 하리라고까지 早斷키는 어렵다

×

日、獨、伊의 三國은 先進國家의 水平面에서 오히려 現狀打破를 버르는者들이라 이點에서는 喜憂를 같이 하는바 잇는 者가 트다 米合衆國은 極東大陸에 向하야 그 對外發展의 最大關心을 가지고 또最大한 力量을 기우리려는者이니 그目標가 다만 支那大陸에만 限하지아니함은 往年尼港事件에 因한 北樺太의 保障占領을 契機로삼은 그 全部의 一段運動으로도 그全貌의 一端을 엿보일것이오 소베트聯邦은 再次의 五個年計劃이 끝나고 一國社會主義的 內部建設의 工作과 함께 한가지 아직 自給的强化에 專力하는 過程이라 움기어外擴을 엿볼者이니나 그는 國際聯盟加盟以來 이意味에서의 平和政策을 그富厚한 外交政策으로 삼는者이다 다만 極東이나 其他 海陸聯接의 땅에서 正常한秩序가 깨여지는 禍亂이라도 잇는때이면 그들의世界的 策動과및 그工作은 위낙 端倪할수업슬者이니 그들은 그 한상 波瀾的인 動作이 常軌로서 律할수 업는者이다 一九一一年 十月 伊太利는 露西亞의 『발칸』에서 『트리폴리』에 쳐하는 國際를 이用하야 『트리폴리』에서 對土耳其의 侵略戰爭을 이르키엇다 그리고 이를 中心으로 한 歐洲列强의 動向은 三年後인 大戰亂의 前奏曲으로 되엇든것이다 伊太利는 마른者리니와 다만이번에는 極東大陸이 마치『트리폴리』以後의 『발칸』인者가튼 形勢로 자리고 잇는것이다 무릇 大戰亂은 그 勃發의 年月을 豫斷할者이니나 强大國들이 스스로를 폐하수업는 局面에 빠지게 되는때부터 그 含蓄量의 序幕은 열리는것이다 (끗)

八面鋒

◇上海에서 突然 日本水兵被殺事件發生。

◇犯人逮捕와 交涉如何에 따라서는 意外의波紋이 생길는지도 未知。

◇英國의 對中 共同借款提案에 日本은 斷然拒絕態度를表明。

◇넘어가는집념에 빗장을 질러 해도 自力更生의힘을 일허버리게되다는것이 重大理由。

◇問題는 英國이 日本의反對를 不拘하고 單獨借款이라도 成立식히느냐 안느냐에 잇다。

◇中國有수 幣制改革은 宣布해 놋코 歐米派諸君의 귀ㅅ밥이 도톰한가。

野村生命 東京本店 京城黃金町二丁目支店

肥滿劑 身體瘦瘠하며여러가지療養도無效하야困難한분들은申請하면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히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市兵衛町七ノ十一 小川藥院

自働唐箕 製造發賣元 京城府光熙町三ノ二一 永田工作所

朝報案內 구인 세루주의전문 견습생을구하오니곳 내담하시요 京城府茶屋町九九 丁子屋分工場

副業에紙袋製造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大阪市天王寺區 電話天王寺 二六一七番 振替大阪 三八〇五、八一〇六七

記念用 印入タオル 賞品用 優勝旗 團校旗 會旗 船旗 寄附旗 出征旗 型錄請求次第 無料送呈 京城府長沙洞八拾五番地 東洋染織捺染部 電話光化門二三一八 振替京城二六四八 印 祥 天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手紙上手は成功の鍵!!! 實用新案 手紙大辭典 大評判の手紙の本 大景品進呈 發賣元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金銀地金分析賣買 京城 金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金銀福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鳩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大都映畫封切 十一月十一日ヨリ 特別大公開 大衆席十錢均一 大都巢鴨撮影所超特作 大洋龍三監督時代劇 海江田讓二 月宮乙女…主演 長脇差子守唄 遠山龍之助、久松玉城 橘喜久子、飯塚小三郎共演 賊島の十返し丹三は恩義直吉と瓜ツのところから直吉と、おとせの間に生れた子供を無理矢理押し付けられて……。待望の海江田讓二一人二役主演映畫 パラマウント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アレキサンダー・ホール監督 世界一可愛い名子役 シャーリイ・テムプル主演 可愛いマーカちゃん アドルフ・マンジユ、ドロシイ・デル チャールス・ビックフォード共演 大都市映畫特作現代劇 小澤得二監督 琴糸路主演 貞操 清純な香子が、恐ろしい罪を犯し、その罪を犯す迄には斯うした物語りが…… 櫻井町 龍本八金 大正館

十一月十二日부터 晝間二回映畫夜間團成社公演 晝間正午十二時부터 午後六時半까지晝映夜間 午後七時半부터晝間映畫 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松竹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名畫자랑하는松竹全發聲 監督=野村浩將 ◇夢見る頃 올·스타 캬스트 映畫藝術의 極致 感傷映畫의 最高峰 ◇貞操鑑札 ◇白龍山龍騎隊 支那大時代劇 仁寺洞 朝鮮劇場

白晝路傍賭博黨이 行人을亂打奪金
六名이作黨、自轉車까지略奪
敦岩里大路에서

백주대로에서 자전거를타고 가든자를 끄러내리어 함부로때리고 돈을빼서간 강도사건이잇다 십일일오후세시 경긔도양주(楊州)읍에 사는 성희영(成熙永)(二○)이가 동대문밧게잇는 가축시장(家畜市場)에와다가 집으로가든도중 부외숭인면 종암리(崇仁面鍾岩里)와 돈암리(敦岩里)사이의 으슥한길에 이르럿을때에 그곳에서 『마루이찌』도박판을 벌리고잇든 도박단여섯명이 별안간 자전거를멈추고 그를끄러내린후 두손을 꼭붓잡고함부로 때리며 신세경사를 하야 주머니에 든돈 이십원과 자전거를 빼서가지고 어데론도망하엿다 이급보를받은 소관동대문 경찰서에서는 비전중(比田中)자부장이하 리(李)박(朴)산전(山田)세형사가 곳현장을 탐사한후 구다단서를 어더가지고 부외신당리(新堂里)한남동(漢南洞)일대를 샅샅치수색하야 오후열한시반에 한남동에사는 윤동원(尹東源)(三○)을 상대현(上大峴)그의 애첩의집에 잠복하여잇든것을 체포하고 공범인 강성부(姜聖富)(三○)외 세사람은 한남동과 신설리(新設里)방면에서십일밤아침 다섯시까지사이에 모다 붓잡어다가 방금엄중한 취조를 계속중인데 아직 도망하야 잡히지안흔한명도 곳체포될것으로 보고잇는데 그들은 항상 뭉치가되야 몰려다니며 노름판을벌리고 지나가는 촌사람들을속혀 돈을빼든상습자로 이날도 장날이기때문에 그곳에노름판을 열고잇다가 견과와가티 강도로 돌변한것이라한다

을각교로 배부하여 철저히 기생충을 퇴치키로되엿다한다

解冬이나되거든 移轉을식혀주!
桃花洞土幕民二百五十名
府에딱한事情陳情

지온(地溫)에 의지해사는 지하계급(地下階級)인 토막민(土幕民)의 정리안은 기보와가티 경성부에서 대체로 부외에 이전시키는 방침아래 방금 만반준비를 진행시키고잇는데 신이전지가 부외정릉리(貞陵里)와 홍제외리(弘濟外里)와 가티 모다 부내에서 멀리떠러저잇서서 지금까지 주로 부내와근교를 생업의 근거로하고살든 토막민은 비록 당국이신부락에 교육위생의 모든시설을 정비하야 명랑하고 살기조흔 부락을 맨드러준다고하나 매우 불안을 느끼고잇다고한다 그래서 십일일에도 도화동(桃花洞)산이번지의이호에 사는 토막시십여호의주민 이백오십명의 대표이십여명이 경성부를 차저와서 아래와가티 그들의 딱한사정을 진정한일이잇다 그들은 지난 팔일에 경성부로부터 홍제외리로 이전해야할터이니 미리부터 준비하고잇스라는 통고를 바덧다는데 원래 그들은 룡산(龍山)일대를 근거로하고 채소 또는 생선행상을 생업으로하고잇든 사람들이므로 홍제외리와가티 부내에서 너무 멀리 떠러진곳으로 옴겨가면 생도에 위협을 늣길만케 업다고하며 또한 겨울을 압두고 갑자기 집을 문허가지고 옴겨가라하나 단돈 오원십원도 맨들수업는 처지이므로 매우 어려우니 명년 양춘까지라도 연기해달라고 하소해온것이다

경성부에서는 토막민이전의시긔와 실행방법등에 대하야 일망일사이에 총독부 경긔도청과 밋관계각경찰서장과합께 협의회를열고 최후의 결정을지어가지고 실행에옴길터인데 지역으로 따라서 일부는 금년겨울안으로 옴길는지도모르고 이전비는 한호에 이십원식 준다고햇스나 정형을 따라서 주기로되엿스므로 대체로는 이전비업시 옴기게하리라한다 위선 진정인들은 그들의 의사를 부당국에 전하고 부에서는 협의회의 결정까지는 모르겟스니 염려말라고 일러서돌려보냇다고한다

五、一五關係自稱 旅費를恐喝한者

지난십일 오후한시쯤되여 부내한강통(漢江通)십오번지 앵정고장(櫻井高藏)의집에 자칭 오일오(五、一五)사건에 관계한소소정(小沼正)이라는 사람이 차저와서 『자기는 면칠전에 은사를바더 가출옥된사람인데 이번 동지 일곱명과함께 만주시찰을 가는길에 러비가떠러저서 세명은보냇스나 남어지네명은 못가고 지금서울에 묵고잇스니 려비몃원을 내노라』고 때에고 무섭게 위협하는것을 곳소관 룡산서(龍山署)에 급보해서 그서형사가달려가 붓잡어다가 취조한결과 이사람은 오、일오사건관계자란것은 엉정한거짓말이고 본적을 홍목현방하군(栃木縣芳賀郡)에 두고 일정한주소가 업시 떠도라다니는 뢰목리웅(賴木利雄)(二三)이란자로 각처에서그따위짓을해서 금품을 빼아서먹든상습자라한다

世專同窓職員 魚博士餞別會 來十四日로變更

금번어비순박사의 은퇴귀국함에 당하야 그가창립하야 성장식힌 학교로 세부란스 의전의직원과 동창생일동은 박사의 전별회를 오는십오일 조선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엿는바 형편에따라서 하로 당겨서십사일오후 여섯시에 조선호텔에서 개최할터로동교동창은 빠짐업시 래참을바란다고한다

七十老人厭世自殺

【釜山】닥처오는 치우와 긔아에 못견되여 칠십로옹이 자살한일이잇다 지난팔일 오전팔시경 부산부본정향치수상(香稚商像)으로부터 약이백미돌 가량 떠러저잇는 송림중에 나이칠십갓가운 로인이 솔나무가지에노끈으로 목을매여서 자살한것을 통행인이 발견하얏는데 신분은 알수업스나 근방사람들의 말을 드르면 그는고독한로인으로 날시가치워지고 먹을것이업서서 자살한것이라한다

昨年中遭難漁船 一千三百八十餘隻
死者二百卅三人、失踪四百九十七人
朝鮮沿岸의一年間統計

작년한해동안에 조선연안에서 조난한어선은 최근총독부의 조사에 의하면 일천삼백팔십사척으로서 피해총액은 사십이만 이천구백팔십륙원에 달한다고한다 그리고 인명의 피해는 죽은 사람이 이백삼십삼명 부상자가 륙십구명 행방불명이 일백구십오명 합계 사백구십칠명이다 그원인은 거의 폭풍으로 최근십년동안의 매년평균 조난수는 일천이백구십오척으로서 일본내지의 평균 삼천삼십륙척 보다는 훨신적으나 어선의 총수에대한 비례는 일본 내지는 겨우 천분의 팔인데 조선은 천분의 사십으로서 약 오배가된다고한다

양재물自殺騷動

부내 적선동(積善洞)삼십삼번지 리덕구(李德求)(二○)는 십일오후 세시반 자긔집에서 양재물을 만히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야 곳 관철동(貫鐵洞)림명(林明)의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만은 건지게되엿다는데 원인은가정불화이라한다

이틀동안에 四名이轢死
◇頻頻한鐵道事故

지난 구、십일이틀동안 철도에 뛰여드러 치여죽은 세남녀—

▽……아홉날 오후다섯시사십분쯤 안양—시흥(安養—始興)사이 부산기점 사백삼십삼킬로미 륙백사십미돌을 진행하든 제이십칠호 렬차에 나히 스물대여섯된 일본내지인이 뛰여드러 자살을 햇는데 그는 청진부 북성정(淸津府北星町)이십번지 회전보(和田保)(二五)로 판명되엿고

▽……가튼날 오후아홉시경 순천(順川)기점 구십일킬로부근을 제팔백십삼호 렬차가 지나갈때 중계생긴 조선여자가 뛰여드러 자살을 햇는데 인근평북 녕변군 리령면 판하동(寧邊郡寧邊面下洞)장로엇(張魯彦)의 둘째딸 엄아춘으로 가정사정으로 그리햇고

▽……열흘날은 제륙백이호렬차가 강선—대평(降仙—大平)사이 평양기점시칠킬로지팔미돌을 진행하든중 조선남자가뛰여드러 죽고말엇는데 그는 대동군 고평면사리(大同郡古平面)최정환(崔正煥)(三○)의 구도와 십생이라 판한끄데 그리햇고.

▽……가튼날 오전세시 이십분경에 세천대전(細川—大田)사이 부산기점이백팔십일킬로부근을 달리든 『노조미』호렬차에 조선여자가철도를 가로건너가다가 치여죽엇는데 이는 대전부춘정(大田府春町)이정목백칠십륙번지문서녀(文姓女)(二○)이라한다

姦夫刑滿十年後

한밤에 거처자든남부를 분개에떨며죽엿다는 시외 아현리(阿峴里)사십칠번지 김순경(金順敬)(二○)에 관한 살인피고 사건은 십일일 오전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으로해임 역신변외 판결을 언도하엿다

孤兒院차저온七歲兒
一躍人氣를끌어
본보의 긔사를 보고서
養育志願者가續出

경긔파주군풍곡(坡州郡豊谷)의고아 리련경(李連慶)(七)이가 하룻자동차에 실리어 경성으로고아원을 차저왓다가 치운 밤거리로 울고 헤매이는것을 서대문경찰서에서 보호중이라는 본보의 기사를보고 그의 가엽고도 한편당돌스러은귀여운행동에 마음이 끌리어 그를 어더다 길르려는 독지자가 만히나오게되엇다 그보다 압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그아희를 위선 시내옥천동(玉川洞)에잇는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으로 보내두엇섯는데 구일밤에는 시내황금정사정목의 박모(朴某)라는이가차저가서 그를데려다가 기르려고하엿스나 고아원에돌어안즌 그는고개를좌우로 흔들며『여기가조와』하면서떠려가기를 집겨아니하엿다 또십일 아츰에는 영등포(永登浦)로부터 자손업는 부인하나가서대문서로 차저와서 역시그아희를 테려다가 길르겟다는 뜻을말하므로 즉시 경성보육원으로소개하엿는데 그하회는 아즉알수업스나 그외에도 지망자가여러이잇서서 경찰에서도 조흔곳에주선하려고 지원자의사정을 알어보는중이다

冬似不冬!
北國咸州郡에 杜鵑花滿發

【咸興】세월은멀서 십일월이라는 추운겨울이 되엿스나 금변의 함흥의긔후는 겨울이란이름뿐으로 아직까지 구월하순경의 따뜻한 가을날세를 지속하야 일반에게 괴이한 감을주고잇는바 칠엽함주군기곡면(岐谷面)에서는사람들의 말을들으면 동면중흥리(中興里)방면의 산에는 일주일전부터 진달레(鵑花)꼿이 만발하여 때아닌 봄경치를 일우고잇다고하는데 이러한 긔후는수십년래에 처음이라고 고로들은 말한다

鍮子食器等 帶方遺物發掘
黃海道平山郡下서

황해도 평산군평산면산성리(平山郡平山面山城里)에서마구용(馬具用)놋자(鍮子)한상과 제사에쓰는 식긔오십개가 발굴되고 계속하야 출토품이잇다는데 이것은최근다수발굴되는 대방(帶方)유적으로서 전기산성리에서는 박지영(朴枝英)외 세명이 그곳에 잇는채전(菜田)에서 벽토(壁土)를 파다가 입부내명이 발견한것으로 놋자는 철로맨든것인데 내외를전부 금과은으로메키를하고 밝게는 조각을한 형적도잇다한다 또제사용의 식긔는 전부 天(?)으로 맨든것으로 이중에 흔히잇는『알미니움』으로맨든 그릇과가튼형상을 한것이다

그런데 전긔놋자와식긔는 평산에서 발견되야 신임외에 총독부사회과로 보내와잇으로 박물관에 보관할터이라는데 최근까지에 이와가튼 대방유적으로 발견된것의 시가가 수만원에달한다고한다

初等生徒거의 寄生虫保持兒

【平壤】평남도 위생과에서는도내 초등학교생도의 건강을 좀먹는 긔생충구제에 착수하여목하나(羅)전속의사를 군부과학교에 파견하여 긔생충유무를 조사중인데 성천군자산면(成川郡慈山面)공립보통학교 생도이백륙십사명을 제일착수로 검사한결과어서 일명을제외한 전부가 무서운긔생충을 가지고잇섯고 룡강군대구(大邱)공립보통학교 일백칠십명 생도중에서도 다섯명을 제외한 전부가 긔생충을 가지고잇는 무서운현상을 발견보고해왓다 도위생과에서는 전부의 조사가끗남을 기다려 긔생충구충약

前後五十一回에 萬餘圓現金收賄
官鹽指定販賣權休存條件으로
專賣局官吏等公判

전매국부사무관으로잇든 앵목순평(櫻木淳平)(四五)전매국 속으로잇든 정상정정(井上貞正)(三○)인천(仁川)전매국수이입매팔인(鹽輸移入賣捌人) 결성웅차(結城雄次)(五○)일본 염업회사 부산대리점 삼전금치랑(森田金治郞)(五四)등네명에 관한 수회증회(收賄、贈賄) 피고사건은 십일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의 관여로 공판이 열렷섯다

피고 앵목과 정상은 전매국 염업계(鹽業係)의 사무를마타보고 잇든중 피고결성과 삼전으로부터 전매국에서 제조한 소금 지정판매권을 영구히 보존시켜줄 조건으로 소화팔년삼월부터 금년일월까지 약사년동안에 전후 오십일회 합계일만여원의 뢰물을 바터먹엇스며 시내욱정(旭町)일류료리집에서 어엽븐 기생들을 데리고 전후수십회에 한계 일천일백여원어치의 료리를 어더먹고 질탕하게 놀을 겨워 노랏다한다

피고앵목이가 처음에 리물을 바터먹기 시작한 동긔는 소화륙년봄에 그의 의동생 (藤)이가 전매국진남포출장소에서 일을보고잇든중 공금일천원배원을 횡령소비한 일이 잇섯는데 그것을 무러주기 위하야돈변통 할곳이 업서서 고민하고잇든지음에 피고결성이가 그런물 알고액수의 관사로돈지원을 가저다가바친데 부터인데 그뒤 정정입맛을 부처서 현금 혹은 상품권(商品券)으로 가저다주는대로 혹은 일부러 청구하야 녕귀넝컴바더먹은것이라한다 이공판은 이상입 계속하게 될듯하다

痲藥密賣하든 八名一團送局

종로경찰서에서 붓잡아다가 문초중이든 조선인 중국인 합작 아편밀매단 류승경(劉承卿)(四○)등 남녀여덟명은 십일일에 조선마약취체위반(朝鮮痲藥取締令違反)의혐의로 모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기엿다 그들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府內安國洞八四 劉承卿(女)(二○)
▲府內松峴洞二一 具亨祖(六○)
▲府內西小門町九 楊維江(三○)
▲府內安國洞八四 張仁子(女)(三○)
▲府內積善洞六一 朴有錫(三七)
▲府內寬勳洞一八五 朴基沃(二○)
▲高陽郡恩平面倉里三四三 朴鍾仁(二○)
▲府內太平通二丁目一九 薛鍾仁(二○)

立冬節季에 杏花가피어
때안인怪候

【江西】평남강서군하에는 지난사십일부터는 돌연히 긔후가 변하야조빙(初氷)까지 보이더니륙일부터는 다시봄날과가티 온회하야 립동철긔에도 불구하고풀립이 생긔를먹고 어떠동리에는향목(杏木)과매화(梅花)는 따스한일긔에속아 봄철로알고 꼿이만발한곳도잇다 금년가튼 긔후는 수십년래에도 보지못하엿든 긔후라고 로인들이 말하고잇다

金漢默總代特志

기특한 총대—시내 옥천동(玉川洞) 총대 김한묵(金漢默)(五三)씨는 자기의 생활형편도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터인데도 헤아리지안코 그동리에 가장 협한 길사십여간을 자긔담당비용을 드려서 얼마전에 훌륭한 길을 닥것다한다

그래서 그동리에 사는 유지들은 오는 십삼일 저녁 여섯시에 시내 교북동(橋北洞) 진흥루(振興樓)에서 잔치를 베풀고 표창식을 거행할터이라한다

칠마추는도적
김장철을리용하야
고초專門으로窃盜

김장철이나흔범죄—부외룡강면 아현북리(阿峴北里)오십칠번지김동호(金東鎬)의 둘째아들 인석(仁錫)(二○)은 지난시월십사일 부내례지동(禮智洞)이백오십륙번지 금목양행(金木洋行) 창고에 드러가서 일원오십전어치의 고초를 훔처내가지고 황금정(黃金町)사정목사십일번지박영태(朴英泰)에게 륙십구전이란 헐한갑에판것을 입마수치기 비롯하여 각처에서 일곱번에 백여원어치 고초를 훔처팔어서 모다주색에 소비한것이 드러나서 룡산서(龍山署)에 붓잡혀 취조를 밧고잇다

假醫師送局

짜가의학박사(醫博)로 한때세상을 떠들게한 부내원동(苑洞)사는 엉터리 최병의(崔炳儀)(四○)는 그동안본정서(本町署)에서 엄중한취조를밧고잇든중 십일일 오전중에 사문서및 공문서위조죄, 절도, 의사행위위반, 인장위조등의 긴죄명으로 방대한조서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겨다한다

天氣豫報
晴、치웁다

七百四十四미리의 優勢한低氣壓은 北海道北部를 東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七百七十四미리의 高氣壓은 北中으로부터 朝鮮으로 퍼저서 日本海는 氣壓의 傾斜가 急하다 滿洲、朝鮮及 日本內地는 日氣가 조코 今朝 氣溫은 昨朝부터 五度乃至九度가 내렷다 裏日本과北海道는雙大處處에雨또는降雪北西風이强하다

昨日 最高 十二度 最低 一度五
今朝 氣溫 零下二度四

運動競技

專門蹴球
決勝은醫專對齒專

朝鮮專門學校 體育聯盟主催 第九回專門學校蹴球大會의 昨夕刊마음以後의 準決勝戰續은 다음과가티 一對零으로 齒專軍이法專軍을 擊退하엿슴으로 十二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醫專軍을 마저決勝戰을 行하는中이다

齒專1 法專0
【前0…0】【後1…0】

同準決勝 齒專對法專戰 同日午後二時五分 玄正柱氏主審 法專先蹴 前半戰雙方得點無點 後半齒專一點(齒專)門蹴七 勝蹴七自由蹴三(法專) 門蹴二十自由蹴十二

◇決勝戰

醫專對齒專決勝戰 十一日午後二時十分 京城運動場에서 李仁圭氏主審 齒專先蹴으로 開始한바 前半戰 齒專開戰二分만에 蹴罰蹴을 利하야 李允鉉君의蹴으로 一點을 先取한後 醫專側의 選手負傷으로 계임은 一時 中止되엿다가 繼續擧行中이다 (午後二時半까지의記錄)

中等럭비豫選
養正軍惜敗

中等럭비豫選의 養正對遺商戰은 十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龍山運動場에서 林氏審判下에 養正先蹴으로開始되엿바 養正殘留부터攻勢로나가 前半戰六對三으로勝한다음 後半戰에드러가 遺商을 回復하야 六對六同點 延長戰에 入하야 遺商은라이를로 三點을 어더 結局九對六으로 養正軍惜敗하엿다

養正 6 (6…3 / 0…3) 9 遺商

스포ー츠斷交
伊政府의決意
制裁參加國과競技안키로

對伊經濟制裁에對한 伊太利側의 反抗氣勢는 날로거세어질사록熾烈하야가는데 이번에는 制裁參加國에對하야 『스포ー츠・보이콧트』까지 聲明하기에이르럿다 지난七日伊太利의올림픽委員會는『파시스트』黨書記長 스타ー제氏司會下에 會合을열고 다음과가튼스포ー츠・보이콧트를 決議하기로되엿다 伊太利政府는『스포ー츠』斷交를 다음과가튼諸國에對하야 施行하는것이다

【英國 佛國 白耳義 뻘셀투크 에스토니아 濠洲 南阿 뉴ー질랜드 구와테말라 리베리아 로시아】

卽以上의各國과의 行하는 一切의 各種競技는 全部嚴禁하는同時에 『오스트라리아』한가리獨逸과의 競技를獎勵할터이라한다

全朝鮮蹴球
嶺南體育會主催
廿二日부터開幕

嶺南體育會主催의 第七回全朝鮮蹴球大會는 從來大邱蹴球協會에서主催해오든바 今般부터彰協會와嶺南體育會가 合倂一體가되여 今般大會부터 引繼主催케되엇는데 諸般規定은다음과갓다

▲時日=十一月二十二、三、四日(三日間)
▲場所=大邱公設運動場
▲申請期日=十一月十九日午後四時까지(大邱南城町一八 嶺南體育會로)
▲抽籤期日=十一月二十日午後七時(場所는追後)
▲參加資格=靑年團 中學團 小學團 ▲參加金=靑年團及中學團三圓式 小學團은一圓

第五回全平壤 籠球聯盟戰

【平壤】崇實體育部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開催되는 第五回全平壤籠球聯盟戰은 九日午後七時부터 崇專體育館에서 開幕되엿다

參加團體는 昨年度優勝팀인崇商A軍을筆頭로 崇商B 西洋人校友 崇中A及崇中B G・O 西除 崇商G・C 中學 鶴員 O・B等十一團體의 入場式이잇섯고 이어서西洋人校對崇實專門부터 競技의幕은展開되엿다 日程은 十四日間 寫眞은大十三

回의 競技가 擧行될것으로日本全中等校를 征服凱旋할 府內軍을中心으로壯快한 競技는 連續될것으로 斯界의期待는크다

高專럭비醫專勝

高專럭비 高工對醫專 戰은 十日午後三時부터 秋子氏審判 醫專先蹴開始 結局十二對十一로醫專軍辛勝

醫專 12 (9…8 / 3…3) 11 高工

米軍7 早大0

【東京電話聯合】全米아마츄어對早大野球戰은 十日午後二時七分부터 神宮球場에서 全米先攻으로 擧行한바 結局七對零으로全米軍勝 閉戰四時十分

早大 000000000
米軍 100101400
7…0

短篇小說

繁榮記 【9】

金起林 作
安碩柱 畵

거진 자랑하다시피 이러한이야기를 두고두고하든남편이다。그때마다 그는남편의 고지식함을 속으로 원망했다。자칫 했드면 나도 희게된 마누라노릇 할뻔했을걸……。

『흥 그까짓놈을 사공이라구같이 본데없지 내가 저놈으 처다보는데?』

아모리 부러처보아도 소용없을 완고한 남편임을 잘 아는 안해는 그만 가벼운 한숨을 비앗고 도라앉저서 잘차코 상을 치기 시작한다

창호는 부엌의 선반에가서 주낙이를 나려다가 마루에 노코 헝크러진 낙시를 가리기시작한다。

깜작깜작 어지러워저서 팔이가세 차례로 세워젓는낙시가 하나이 둘셋으로 흐려보인다。나루에서는 룡철소리가 점점흐러진다。점의 배짱처를 흔들리우는것갓다。바다。바다가 제일조타。바다는『주인님』이라고부를 필요가업다。위

암전구르며 도라서나가는 우체부의 벙거취소리가 아주 한길에 사라진다음에야 창호는 몽둥닷고 도라선다。손바닥우헤서 커다란봉투를 닳어본다。

떠려질든 영수의 웃사글도 지낫구월까지 다무럿고 세금은비목 처하등이되서 얘운앗다지만 귀한몸 넘겨온일이 업는데……어쨋든 재판소서류란 상서롭지 못한것갓다。

『재판소량이?』

안해도 설거지를 하다가 물에 저즌손을 치마자락에 씻스면서 남편에게로 걸어온다 눈이둥그레진 영수의얼굴도 어머니의등뒤에 따라선다 창호는 봉투를 들고 다소떨리는손바닥에 안해와아들의 무거운시선을 한꺼번에느꼈다。

그만동주머니에 봉투를 겨버서 너코 뷔에서 두루마이를 버껴서 입으면서 허둥거리는발길이 정주에서부터 고무신짝을 찾는다。주낙이이가 발길에 채여 뒤집어저서 낙시가온아래루에산

넘어젓다。일년에 다만한번 사월초파일날 안해를 시켜서 바나까에 나가서 기름냄새를 피는것도 오직이편의 미안한 심사에서 나온일이다。그러지안때에도 고기만 잘잡자편다。그러니까 아모에게도『주인님』하고 니리를 수그려본일이업다。사촌놈이 제아모리 뒷거리에서 고래등가튼 기와집을 쓰고산들 쌀한되 그압헤가서 꾸어본일이잇나? 어느선주인의배에서 일하는것도아니고 비록 목욕통만할망정 내배를 타고 나대로 바다에나가서 내멋대로 갓도리를 해오면그만이다……연거퍼 바께서『편지오』하는소리에 어데마침것처럼 창호는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문을 밀엇다。화한 사스들이 문으로 쏘다저드러온다。창틈빗에 떠려케 저근창호의 얼골이 눈이부시는가보아 찡그린다。

『도장 주』

우빗의저편에서 우체부의 목소리가 다시들린다。

『무슨도장?』

『서류요』

『서류랑이?』

『재판소에서 오는갑소』

『재판소?』

창호의가슴은 이소리가전하는 어떤지 언짢은느김에 몹시놀랫다 그는 서낭들고 귀밋한 방안에들어가서 벽장구석에서 목장 주머니를 차거내서 고냥으로。

사히 흐러진다。무슨속씨언한대답을 기다리는 안해와아들의떠은 도라도 보지안코 그는한길로뛰여나와다。노푸다고올려드리는데가 낫코 낫다고나리드단데가 도리혀 노파서 대중할수가 업다。길바닥이 울굽불굴 굴를거린다。

길량편에 두줄로 느러서 다라노흔 오색종릉빗에 큰거리는 더욱휘황하다。초롱과초롱사히의 새끼줄에서는 기다란 은빛술빗 조히수시가 바람에 휘날린다。김순사가 뒤짐을집고 오락가락하는 파출소엽흘끼고도라서 그는 창원이 의 대서소 대문보 드러선다。

사무실방에는 불이꺼젓고 마루에서 한참암놈을노리든 숫고양이놈이 후닥다 단장을 뛰여다라난다。

그는 정주문으로 걸어갓다。

『형님어디갓소?』

그릇소리가 달그랑거리든 안으로향해서 물엇다。

창원이의 마누라가 문을열고내다본다。

『뉘귀오?』

『내오』

『생원이오、저멍수네하구 재회네하구 오늘 땅롱정이 되서래 그래서 연회잇다구갓는데——』

『어디메서 연회잇답데?』

『조일정이오。』

창호는 인사도 니저버리고 바삐 도라서서

十一日 (月曜)

◇午後六時 童話어야기ABC 李基鍵

◇同六時二五分 講話(ＡＫ子時) 國民精神作興의가을 曹在浩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記念講演 生活改善에對하야 朴勝彬

◇同八時 (大) 女聲合唱 一、民謠…떡그네作曲 二、明治의日本…헬리암스作曲 三、舊謠…모-차르트作曲 四、길봉…弘田龍太郞作曲 五、歌劇…그몬크作曲 大阪放送合唱團 피아노伴奏 指揮

◇同八時二〇分 唱歌劇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水宮歌 鼓手 金 丁元燮

◇同九時 樂劇 =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 一、合唱 도라지打鈴 二、獨唱 (裵龜子) 다이나 三、舞踊 東洋의薔薇 四、樂劇 明朗한방동이 二場 裵龜子脚色 配役 아려킨(弟)…李英子 아려킨(兄)…裵龜子 로제트…洪淸子 弟의戀人 넷타…裵淑子 外에奏는 사람 裵龜子樂劇團

十二日 (火曜)

◇自午前四時五五分 至同六時五分 (東) 休戰記念日國際交換放送(第一放送에依함)

◇午後零時五分 (東) 토-키- 中繼-銀座八丁目옥스試寫室으로부터中繼--空中울님)는音樂

◇同三時一五分 家庭講座 毛絲編物(二)핵스트使用 張和順

◇同六時 兒童劇 正義의노래 全一景 配役 仁順(孝女)…韓貞媛 貞姬(小學生)…咸壽得 李淑(小學生)…吳千任 仁善(靑年)…鄭鍾株 山자이…柳河鼎 其他學生 一二 出演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解說 劉永順 指揮 南基薰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吳基

◇同七時三十分 國民精神作興記念講演 公德涵養에對하야 金明濬

◇同八時 演談 李將軍의義勇傳 玄

◇同八時三〇分(東) 빠이올린과絃樂 一、빠이올린協奏曲 一番 G短調 브르흐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終曲 二、序曲『로-마의謝肉祭』 베를리오-즈作曲 빠이올린獨奏 桂貞植 新交響樂團 指揮 니콜라이、시메트블랫드

◇同九時一〇分 誦詩 一、秋聲賦 二、竹樓記 申國

家庭醫學

륵막염이재발

問 이십이세미혼녀자인대본내놈이약하온데다가 사년전에우여히 륵막염이걸려 치료하야나하스나 춘주로 재발합니다 환부가(좌우편)륵업고 수축이 긔우이 업습니다 힘든일을 하면낫는다하니 정말입니까? 운동은 엇더한 운동이 적당할까요 ?히재발되지안할방도를 가라주시기바랍니다 (市外번민생)

答 사년전에 륵막염을 앓금 그후 춘주로 재발한다하시오니 륵막염이 춘주로 재발한단낯으 판단키 어렵습니다 그보담도 륵막염후에 폐가 조처못하야 기것이아닌가생각되오니 한번전과의사에게 진찰을 바다보시오 힘든일을하면 낫기보다 오히려 더할것입니다 몸을보하기위하야 감자체로 빠르토-제 어강유 복가시고 신열이업스면 적당계 산서보나 하십시요 운동 조키운동입니다 겨울에든지 각긔에걸리지안케 조심하십시요 [illegible]

大英斷

年産壹億余圓

愛知縣特産羅紗

S.B 織直元賣

普通市勢의半額保證

全國運賃元拂負擔

大流行最新型 霜降オーバ

防寒用 羅紗オーバ

愛知縣은東洋一의毛織物製産地인것은여러분도다아시는바이지만 東西로販路를넓펴 外國品을驅逐二ツボンラシヤ의名은世界一位의 最上技術과最低의價格으로서 需要者相合한結果로半額의全字塔을樹立한所以도이에잇다。

兩前型

(500)	厚地霜降ラシヤ 朱子裏付	9.80
(501)	ベロアー厚地霜降 絹ピツク裏付	12.50
(502)	高級ベロアー厚地 台裏仕立紳士用	18.00
(503)	最高級紳士用 ベロアー羅紗	28.00

寸法 鯨尺 29.30.31.三種

兩前型

(507)	日毛特製 厚地メルトン	6.80
(511)	日毛高級ベロア 厚地ラシヤ	9.80
(512)	ラクダベロアー高級品	13.00
(513)	高級キロツトラシヤ 注文仕立紳士用	19.00

以上寸法 鯨尺 29.30.31三種

片前型

(506)	日本毛織特製 厚地メルトン、紺黑	6.30
(508)	日毛高級ベロアー 厚地ラシヤ	8.80
(509)	ラクダベロアー高級品、台裏仕立、絹裏	12.00
(510)	高級キロツトラシヤ 注文仕立紳士用	18.00

以上寸法 鯨尺 28・29・30三種

注意

대단히未安한일이지마는絕對責任잇는製品이오며반드시 鑑定에마즈리라고確信하오며紳士服은어느기든지上衣チヨツキズボン의三揃이옵시다。

グランド オーバ 【通勤用】【通學用】 (半オーバ)

(504)	黑厚地メルトンバンド付	5.30
(505)	特厚地霜降ラシヤ 特上品バンド付	6.30

寸法 鯨尺 30.32二種

詰襟服 (金ボタン附本 仕立上下一組)

(463)	厚サージ朱子裏付(上下)	七圓八十錢
(464)	極上36厚サージ 洋朱子裏(上下)	十一圓五十錢
(465)	防寒用純毛メルトン厚地	八圓三十錢

多向背廣服(三ツ揃)

無地背廣部

(460)	厚サージ純毛紺黑 洋朱子裏付	9.80
(461)	純毛厚サージ極上品 紺、黑洋朱子裏付	14.50
(462)	防寒用純毛メルトン 紺、黑二色洋朱子裏	10.00
(455)	最高級ピツケ純毛 紺黑アルパカ裏紳士用	23.00

柄背廣の部

(450)	純毛ウーステツト 斜紋柄絹朱子裏	11.70
(451)	純毛ウーステツト立縞 洋朱子裏紳士用	14.80
(452)	純毛スコツチ立柄 青年向洋朱子裏	13.50
(453)	純毛ウーステツト大柄 青年向洋朱子裏	15.50
(454)	高級スポーテツクス紳士用シルバー裏付	18.30

以上特大、大、中、小四種 御注文當時・身長・體重・年齡等要御通知

文注

●御注文은現金을送하시면代金引換으로보내드림 ●御注文時에는身長、體重、年齡、色、스타일등을記入 ●見本을보내드리오니注文하시요 ●郵便을利用하시면 ●品物이맘에 안들때는交換又는返金하여드림

純毛ヲシヤズボン

無地ズボン의部 各一本에付

	純毛厚サージ紺黑	2.90
	純毛極厚サージ	4.30
	防寒用厚地メルトン	3.00
	ウーステツト紺黑	4.10

流行柄ズボン의部

大奉仕均一一本 4.50

スコツチ・ウーステツト・スポーテツクス 純毛高級品으로서市價七圓以上의品등 特大・中・二種年齡・身長・要御通知

禮裝用

コール立縞ズボ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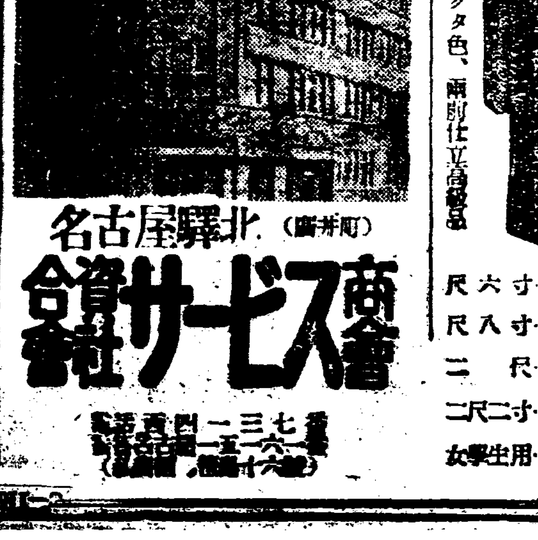
一本特價 5.50

朝鮮向オーバー

大身巾 廣袖 仕立一新發賣品

514 A	日毛厚地メルトン 二種毛朱子總裏附	紺黑一着	六圓九十錢
515 B	高級厚地ベロアー 紳士用本朱子裏附	紺黑一着	十圓五十錢

●朝鮮紳士上衣防寒用オーバー로서調製專門店獨特品이올시다



紺サージ女學生 純毛厚地紺サージ極上品 各一着上下組

尺八寸	一二年用	3.80
二尺	三四年用	4.00
二尺二寸	五・六年用	4.20
二尺四寸	女學生用	4.50

小學生ラシヤオーバ(男子用) 黑厚地メルトン、總裏附兩前仕立

尺六寸	幼年用	4.30
尺八寸	一二年用	4.70
二尺	三四年用	5.00
二尺二寸	五・六年用	5.30

水兵服

女學生ラシヤオーバ 厚地ベロアー、ラクダ色、兩前仕立高級品

尺六寸	4.80
尺八寸	5.10
二尺	5.40
二尺二寸	5.70
女學生用……二四・二六	8.00

名古屋驛北 (廣井町)

合資會社 サービス商會

電話西四一三七番 振替名古屋一五一六一番

현무비누

ゲンブ石鹼

日氣가조흐니 洗濯이나하자

最新電氣醫療師

電氣醫療師

近日總督府令發布・今回特別責任教授함

學理、實地全科責任養成

●短期卒業、僅小한資金으로 도곽成功한다

●醫師同樣의尊敬과收入을엇고一生安樂할高職

卒業生은內地、朝鮮、各地自由開業의資格잇슴 最近法令으로發布되려하니入學하려면只今이好時期 本院은此方面第一이올시다 電氣醫術의創始者로서東京電氣醫學校長의監督下에 朝鮮에서本院以外에는資格잇는養成所는업다(規則無料送呈)

府東京電氣醫學校朝鮮分校 朝鮮高等電氣醫學講習院 京城黃金町三ノ三四四

그것은……랑 랑 포 마 -도

ランランポマ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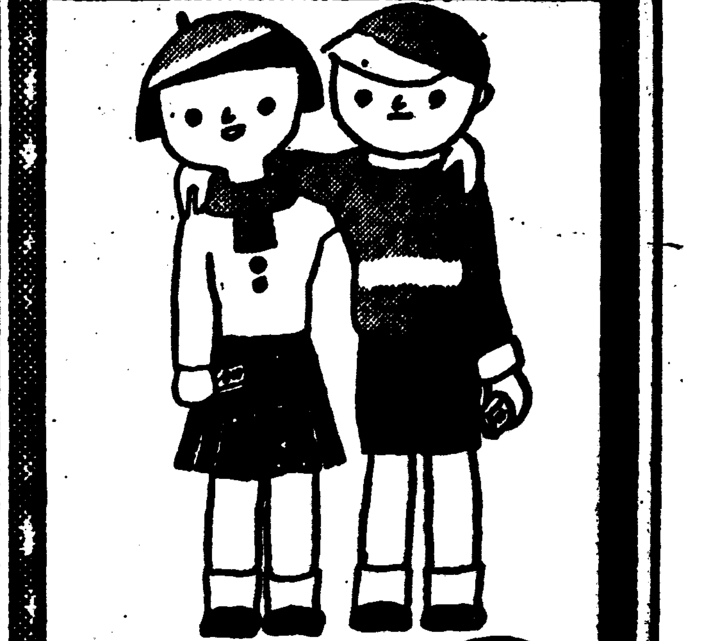
나시오포마-드

그시오포마-드

55 전

33 전

●徹頭徹尾속까지 はれやか(하레야가)●



元氣잇는우리들과 가장친한동무!

森永ミルクキヤラメル (카라멜)

찍조온懸賞막ー크欽合募集中

森永製菓株式會社

肌百年의靑春美

牛乳石鹼

『牛乳』는 眞正한마음으로 貴女의靑春에 꾸며드려보내다…

No. 333

梅毒과體毒 베루쓰丸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九日ヨリ特別大公開 東西三大映畵の併立興行、大人三十錢 大映畵提供、中央館獨自の大奉仕週間

新興キネマ超特作サウンド版 上島量脚色、監督上手二郎 伏見信子主演 戀の浮島 水郷哀詩 薄倖可憐の乙女が悲戀に泣く湖萊

立松晃 三桝豊、小宮一晃 瀧澄子 風に帆まかせ櫓は波まかせ、小たしや小舟にサテ身をまかす、呪の言葉に引かれて戀を語る二人の身に悲しい運命のいたづらが……

ウオーナー・バードンプロダクション百萬弗映畵 アンガ 眞に古今未曾有の怪奇猛獸映畵

新興京都撮影所新特作時代劇 オール讀物號所載野村胡堂原作 押本七之輔監督錢形平次捕物帖(サウンド版) 濡れた千兩箱 小金井勝、泉清子、櫻井勇、東良之助共演

永樂町 電本三二 中央館

十一月九日부터三日間大公開 東西洋映畵名篇選擇上映 每日三回興行正午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明治十三年』 原作…川口松太郎氏 監督…石田民三氏 明治十三年 妖艶 鈴木澄子 主演

明治에懷古的雰圍氣에우아롭어가는罪惡的인毒花의香이것이야말로 澄子의情熱을맛치여明治情緒映畵에最高峰!!

파리마운트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絢爛한殺人 監督……밋첼·라이젠氏 작크오-키-氏、가르스氏、갈브레-스 주演

화니데이트劇場舞踊團特別出演、匠代아메리가레뷰! 無尚의歡喜를자랑하는밤의大歡樂境!니데이-틀의姿態쓰판初日의輝이 世界에서選出된美人群의肉體美 그들의여로데이米國最尙의最高의레뷰 스타땃들이아랄도藝術의한레뷰이의頂天!

第一劇場

十一月七日より 晝夜三回第一回十一時半 第二回三時第三回六時半

松竹ニユース

松竹蒲田ナンセン篇 目と耳の新聞 第二三三號

宗本英男監督 坊やと日曜日

松竹第一映畵提携最初の時代劇 オールトーキー お孃お吉

大衆文藝の鬼才川口松太郞 原作 監督 衣笠貞之助 山田五十鈴、高田浩吉、梅村蓉子共演

蒲田ヨリ特別出演 林長夫 天性の美誌を資本に娘だてらにあられもない白波渡世 二の腕に流れた牡丹の刺靑鐵火の氣性に男もたぢろぐ！

松竹蒲田超特作 伏見脚色 佐々木康監督 眞白き富士の根

及川道子 水島光代 花村千惠 松小林十九二 上山草人 岩田祐吉 共演

◉今週はお忘れなくハンカチを御用意しておいで下さいませんとあなたの御召物が汚れます

浪花館 京城明治町

十一月八日부터十二日까지 裵龜子樂劇團 惜別興行週間

(每日晝夜二回興行 晝間午後一時開演 夜間午後七時開演)

東京에先約된公演關係로本劇團이惜別大公演을하여 京城의人氣藝人總網羅하야 연예의수준을기대하리라고믿습니다

(1) 崔獨鵑作 樂劇『피리의奇蹟』全一景

(2) 東劇文藝部提供 樂劇『雙童의結婚』二景

(3) 寸劇『아첨하다逢戀』一景

外興味出演 少女合唱 舞踊 歌劇등

同時封切映畵 朝鮮映畵社超特作品

『月光石』 全八卷 外小品映畵數卷

竹添町一丁目 電光3三三三 東洋劇場

十一月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後一時 三時 六時 ○ 十五分)

◇M、G、M超特作日本版 자취업는男子 위리암파웰 主演

◇파라마운트社超特作日本版 외스티리아웨스 主演 크로데트콜벨

◇P、C、L超特作全發聲映畵 빗나는百合 吉川英治原作 山本嘉次郞監督 丸山定夫、伊藤薰、竹久千惠子 あるぶす大將 千葉早智子主演

團成社 全鮮映畵界第一 映光 鍾路

不安의哲學者「하이덱겔」 —그現代的意義와限界—

⑧ 朴致祐

이러한態度의 可能不可能의 問題는 여기서는 二次的 問題다 이러한 態度가 可能하냐 不可能하냐 하는問題를 뭇기前에爲先 우리는 그들이 自身의 危機를 打開하기爲하야 얼마나허둥지둥 거리고잇는가 하는그點만은 率直히 承認할만한 雅量은 잇서야한다.

다음 그러면 그의哲學이 가지는바 必然的인 限界는 어느곳에 잇는것일까? 나는 그것을 그의人間觀이 結局은『諦觀的』이며『絶望的』인 人間觀에 지나지 못한다는 그點에 두고십다. 나는 웨 이러케말하는것일까?

그의人間觀은『諦觀的絶望的』이라고는하나 그러타고 이것을 대번에

自 暴自棄的인『데카단스』와 同一視하여서는안될것은 勿論이다。單純한自暴自棄와는 混同못할 積極的인『무엇』이잇는것이기때문이다。이러한『무엇』은 또한『데카단스』와『레리기오』을 區別짓는가장重要한 契機도되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點을 設사承認한다치더래도 다음과가튼 事實만은 確實 할것이다。即—거기서 차저질 참된自覺이란 純粹自我性의覺得即『純粹自覺』은 될수잇서도 아직『歷史的社會的』인 自覺은 못된다는것 따라서거기서차저질 自己的인自我란 結局은(우리들의 述語로부른면)時空을 떠난『純粹人間』밧게는 못되리라는것 이것만은 確實할것이다。웨인가하면될수잇는대로 世上을떠나야만 世事에 沒頭되는狀態로부터 떠나야만 다시말하면 現實的인世界를떠나야만 어들수잇다는 그의所謂참된自覺이란 結局은『現實』을 떠나기爲하여서만 잇슬수잇는 自覺밧게는 못되는것이기때문이다 純粹한自我性에 깁피깁피

沈 潛하야 世上을向하야 分散되엿든『關心』을內向시켜라 하는 그의 이一見깁흔듯한 敎說은 實相은 다음과가튼 至極히簡單한 한개의 命題로 바꿀수잇는것이다。即『풍무여! 現實을 하로밧비 떠낫지어다!』

그러나 一步를讓하야 그의以上의諸主張을條件업시 承認한다하더래도 亦是 다음과가튼 事實만은 確實할것이다。即 마임現實만떠나면 대번에 純粹한 自我性을 發見할수잇다하더래도—(事實은 잇슬수업다。如何한程度의 純粹自覺도 名辭만이 純粹인것이지 文字대로『純粹』한自覺은잇슬수업다。웨인가하면 그들로하여곰 이러한 空虛한 純粹自覺만을 찾지안코는 견딜수업게구는 必然한『現實』的背景이 부러다니는것이니까—)어느時代를 異論하고 新興意識에 불타든 사람들은이러한 空虛한 自我性의發見과는 가장 먼距離에 선다는그것만은 確實한것이다。다시말하면 如何히 積極的이든 如何히

深 遠하든 간에 적어도『諦觀的絶望的』이라는 冠詞가 붓는 人間觀인以上 그것은 敗北性과는 關係잇슬망정 新興性과는 無緣이라는 말이다 이리하야 우리는 다음과 가튼 斷定을내린다。

即 하이덱겔哲學의 現代的意義가 그가諦觀的絶望的인 人間觀인 그點에 잇섯다면 이와同一한 權利로서 그의『限界』도 또한 이點에 달린것이라-고 하이덱겔哲學의 意義性은 그의 限界性이다 그의哲學은 한개의 그러나 아름다운 한개의『敗北의哲學』이기때문이다 이러한『敗北』는 그러나『야스펠스』에 이르면 더한層切迫된表現의 形態를가추게된다 (以上)

【附記】이小論은 前日 本紙上에 揭載된 拙稿의 一文의 誤植訂正表(重要한것만)。

一回五段二十一行—『가장 現實的根據』는『가장現實的인根據』

三回一段十七行—『이데아리즘』은『리어리즘』 『나추라리즘』의誤植。

同回五段十二行—『부를수 업다』는것이다 는『부를수잇다』는것이다。

四回一段十四行—『中世的 意味의實在論(노미나리즘)에對한리어리즘과는……』는『中世的意味의實在論(노미나리즘에對한 리어리즘)과는……』。

五回一段八—九行—『極히엽가 쉽게말하면 사람은 누나할것 알시…』은『極히알기쉽게말하면 사람은 누나할것이시…』

同回 二段五行—『낫지나아니하고』는『낫지나아니한가하고』

六回二段 五十五—五十六行。『우리는 沈黙의 소래에귀를깨닷게…』는『우리는 良心의 沈黙의 소래에귀를 기우려自我를깨닷게』의誤植

文壇異議

(1) 李源朝

日前 某紙에 鄭寅燮氏는 文藝時評이라는 題目下에서 消消萬餘言을 費한 長論文을發表하엿다。이時評은 다아는바와가치 四部로 논하엿스니 第一部가『世界文壇의 當面動議』이엿고 第二部가『文學團體와 文藝家協會』이엿고 第三部가『朝鮮語文科와 英語科』이엿고 第四部가『朝鮮文學의 主流問題』이엿다。

이論文의 內容으로 敍述된事實이 큰데이르러서는

原 始時代부터의 人類全體의文學的發展과 歐米의 政治的動向까지 論述하엿고 적은데이르러서는 張貞心氏의 文藝家協會員 資格審査까지 하게되엿스니 이러틋 尨大한論文은 實로 近來罕覩의것으로서 이러한意味에서 자못 示唆的이엿고敎訓的이엿다。그럼으로 氏가 이論文에서 至再至三하도록 重言復言해가면서 이論文은 時事的으로매우重要한 것이니까 꼿까지 精讀을 하라고 要請하지 안엇다고 하드래도 우리는 平素부터 氏의 世界文學에 對한 造詣가 깁흐신것을 敬仰하든남어지라 氏가累累히 말한바와가티『大同을 爲하야서는 小異를버리는』 筆者의胸懷를 본바더서 中學生과가튼 向學熱로 오직『讀書心理』만 集中식힌 冷靜한態度로 熟讀吟味 하엿스나 萬若 우리가 이論文을 熟讀吟味함으로 말미암아 이論文의 論調가 散漫하고 見解가 歪曲되고 例證이不正確하다는 幾多의

病 理的狀態를 發見하엿다면 이것은 氏의不幸이라고할까? 또는 우리의 不幸이라고할가?

대체로 거의 不治의地境에 이른 이論文의病理를 打診하는데 잇서서 내가 얼마나한 苦痛과 煩悶을겻는가는 다음에말하기로 하고라도 그러면 그처럼 煩悶과 苦痛을격거가면서 나는 왜 그論文을 重要하게 보앗스며또한 이붓을드느냐하면 鄭氏의論

『[illegible]』라는것이다。이말보다 벌서 [illegible]하기짝이업스나 이말과 이論文을 參酌해서 생각해본다면 이말을通해서 鄭氏의 말하고시퍼든意圖는 世界文壇의 當面한 모든問題와 事實을 列擧해서 그것의 一表인 朝鮮文壇에 動議한다는것이아닌가하는 생각이 난다。그러타면 우리는 이論文을 決코 그냥 看過할수업는것이니 우리가 動議라는 한개의 社會的形式을볼때 그動議하는바의 內容이 事理에 맛고 안맛는것은될제치고 한번 動議가 나온뒤에 거긔에對한 贊否의異論이업스면그것은곳

形 式上으로는 滿場一致가튼 可決이라는것과 性質을띄게되는것이다。

그러나 萬若 鄭氏의 이번動議가 滿場一致의 可決에性質을띈다면 果然 우리文學의 갈길은 어듸로通하게될것인가? 생각이 여긔에 이를때 나는 鄭氏가 累累히 警戒한바와가티 決코 黨派的感情에서가아니라 나도 鄭氏에 밋지지안는 雅量大度를가지고 鄭氏의 이번動議에 對한 멧마듸의 異議로서 이一文을 抄하는것이다。

勿論 動議와 異議에對한 最後의 裁決은 우리들의 讀者大衆에게 맛겨지는것이니 이것으로보아 참으로 文學을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냐?하는것이 알녀질것이라 구타여 남의 同情을 살려고할 必要는 업지만는 다만 한가지 말하고저하는것은 氏의論文을 읽어가면 그論調의 三分은 거의 道學的敎說이다 曰 惟我獨善의 態度를 버려라 小異를버리고

協 調를해라、黨派的私感을 버려라、하는등 不知其數이다。그러나 우리는 곳하여 이말을 鄭氏自身에게로 返還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 事實 鄭氏의 論文을읽어본다면 그讀者가 文理의 色盲이아닌以上에는 이런말을볼때에『推測은 그人格의象徵이라』는말과가치 鄭氏야말로自己의意見 또는 自己派黨의 態度에贊同하는사람은 全部가 올코 反對하는사람은 全部가 그르다는 態度가 얼마나 濃厚한가를 당장에 알수잇슬것이다。그럼으로 世上에는 鄭氏의 눈으로볼때에 邪한사람이 다른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더만히 公正하다는것을 鄭氏自身이 알수잇섯다면 氏의 이번論文을 좀더 愼重햇슬것이다。

科學隨筆 雙眼鏡 (三)

鄭槿陽

電子의位置와 速度를 同時에測定 할수업다함으로 不確定性原理를主唱한것이엿다 數式으로서는다르든모든 物理學에서 通用되는바이면 經驗的인 電子世界에서 通用될듯십다。 그리고 또位置와 速度를 同時에 測定할수도 잇슬것도갓다。同時에 測定 할수업다는 것은 觀測手段이 未備한까닭이나아닐가。客觀的實在를 觀測하는手段은 그對象에 對하야 何等의

影 響을 주지안는다는것이 第一義的條件일것이다 物質을 構成하고잇는 最少의粒子인 電子에對하야는 이러한觀測手段이、업다는것이 電子論에서 證明되엿다고한다。萬一그렇다면 이理論이 믈리어지고 미터지는限 우리는 電子의實在의 實驗은 할수업슬것이요 單只思考實驗에 不過할것이다。萬一그럿다면 以上電子에對한 理論은 物理學的概念일뿐이요 客觀的實在는아닐것이아닐까。이 物理學的槪念으로서 新理論을 展開식혀、因果律을 否定해 버린다는것은早計가아닐가。

그러면、『自由現象에 關해서는 本來因果律이成立될것이다』라는 假說을 새로히 反省하매『아인슈타인』이 생각한다는바와가티 因果律否定을 排斥하고 量子力學理論을 세우기爲한、外面的인表現이라고생각하고、因果律을 保存할 다른 理論을 求하라는것이 오히려 可하지나안을가。現在의觀測手段 即 電子의客觀的實在에 엇더한影響을미치는 그러한手段을 버서나지못하는限 因果律은

否 定 되엿다고 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客觀的 實在에 影響을 끼치지안는 手段을 꼿꼿내 發見하지못할것인가。偶然은 우리의 無知를 재는 尺度에 不過하지나안을가。

影과色에、何等의關係도 업는記號로 規約的으로 表現하는것이 新電子學說이다。그러나 우리는 物理學現象의 더 直接的인 槪念과 敍述을 바라는바이다。量子力學者도 因果를 無視함을 참된表現에 實進할것이다。주제넘은 생각에 오래저지 내自身을 그러히 녀이는바이나 읽은 論文에서부터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되것이오 또專門家의 卓見을 듯고저하는 願도잇서서 지리하게 적어보것에 不過한것이다。

(三) 꿈

나는꿈을잘꾼다。日前 이別한꿈을꾸엇다。硏究室에서、내차례에 도라온 人體解剖를 畢한後 떼여낸各臟器를 통속에 집어너엇다。우리硏究室에서는 普通 꺼내인 各臟器를『홀마린』이라는 固定藥을너은 朝鮮式질그릇항아리에 貯藏하야둔다。그러나 이날은 조고마한 항아리대신에큰『세멘트』탕크속에 여러臟器를너어두엇다。그리고 助敎授와 只今解剖한 結果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든中 그는 心臟에內膜炎이 잇섯느냐고뭇는다。이때에 다시

檢 査하기爲하야 그와가치 貯藏해두는탕크로向하얏다。心臟이든탕크속 갑히들어잇슴으로 꺼내줄수가업섯다。생각다못하야 탕크의물을 빼내기시작하였다。몸을떼면서、드러다보니 心臟은 두개의 큰눈을휘번덕거리며 움지기시작한다。점점 무시무시한 생각이드럿다。그러나 꿈속에서라도 탕크속도우어 죽어버린 한개의 心臟이안이냐 하는생각으로 손으로집어내랴하나 차츰 차츰 움처잡음새어서 미창구녁으로 나가게되엿다。겻헤 서잇든助敎授러러 구녁으로나가니 조곰안달라고하엿다。그러나 그는참을사이업시 어느듯 수채구녁을 드러가고말엇다。그수채구녁을 드려다보니 뚜렷한 두눈이 번개가티 빗나는光彩를發하며 나를노려보고 甚히 怨望하는것갓다。졸은 수채속에끼인 번개가튼 두눈은 금세로 뛰며 나올듯이 氣運차다。갑작이 소름이쭉끼치다 나는 기측하얏다 여기서꿈을깨엿다。

담배를한대피우고

다시 잠을이루엇다 또한가지꿈을꾸엇다 다음가튼꿈이다P君과 露西亞로 놀너가자고 相議가되엿다 汽車를탓다 그停車場이 京城驛은 안이엿고 別로驛이라할만한 建物도 서지안은 편편한들에서 車를탓다 그汽車란것이 怪常하야電線우에 집단(束)이노여잇슬따름이다 이집단이電線우를 닷는것이다

十八世紀의諷刺畫家 『호거-스』의眞筆發見

【더-반發聯合郵信】十八世紀英國의 諷刺畫家로서 著名한『윌리암·호거-스』의 作品이라고하면 美術界에서는 珍品視되고잇는데 最近 南亞弗利加의『더-반』市의『누-즈베르그』家이라고하는 舊家에 그眞筆로된 一枚의 肖像畫가 發見되여 벌서부터 同地의 美術商間에는 激烈한 爭奪戰이 開始되고잇다。發見된 繪畫에는 高貴한 女性의 肖像이 그려잇서서 專門家의 鑑定에依하면 이것은 例의『스코틀랜드』의『메리-女王』이나『메디치』의『메리-』이나 둘중에 하나이라고하는데 그것이『호거-스』의 肉筆이라는것은 疑心할 餘地가 업서서『더-반』在住의 某國美術代理商이 一千『폰드』를 주고 買入하기를 申請한것을 비롯해서 三千『폰드』까지 내겟다고하는 商人이 出現하엿다。따라서 이 그림은 긴歲月을 지나느라고 더러워지고 겨개되여 肖像이 누구의것인가 알어보기도 어려운 때문에 오늘까지 이러한 珍品이 잇는것도 判明되지 안엇다고 한다

曆 十一月十二日(火) 舊十月建丁亥(大) 十七日 壬辰·水·實·執

●裁衣에宜함
●立冬八日(舊月十二日)
●小雪二十三日(舊月廿八日)

黑風 【172】

韓龍雲 作 金熊超 畵

결혼 12

그들의 결혼일자는 여러가지의 사정을 참작하야서 다음해 이월 보름날로 결정하얏다

창순의집에서 여관으로 도라온 왕한은 콩난에게 답장할것을 생각하야 보앗스나 용이하게 생각이 나지아니하얏다 답장을 아니할수도 업는일이오답장을 하자니 난처하얏다 그러나 창순이와 결혼할것을 결정한 이상 콩난에게대하야 언제까지든지 거짓말을 할수도 업는일이오 또는 그러할 필요가 업다고 생각하야서 사실대로 편지를 반이나 쓰다가 붓대를멈추고 써든 편지를 박박 찌저버렷다 그것은 콩난에게 대하야 사실대로 답장을 하는것이 분륵이한 일이나 그러나방금 자기로 말매암어 위독한신병을 지나고 아즉까지도 병석에서 신음하면서 조흔 답장이 오기를 날과 밤으로 기다리고 잇슬 그사람에게 결혼을 거절할뿐 아니라 다른녀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얏다는것을 알녀준다면 콩난으로 하야금 병세를 더처서 생명에까지 관계가 될는지 모르는일이므로 그편지를 그대로 보내기는 너무도바절하야서 참아 할수가업는 까닭이엇다 그리하야 왕한은 다시 콩난을 여러가지로 위로하고 결혼에 대한일은 줄여하고 도라온뒤에 고국에서 서로맛나서 결정하자는 뜻으로 편지를 써서 부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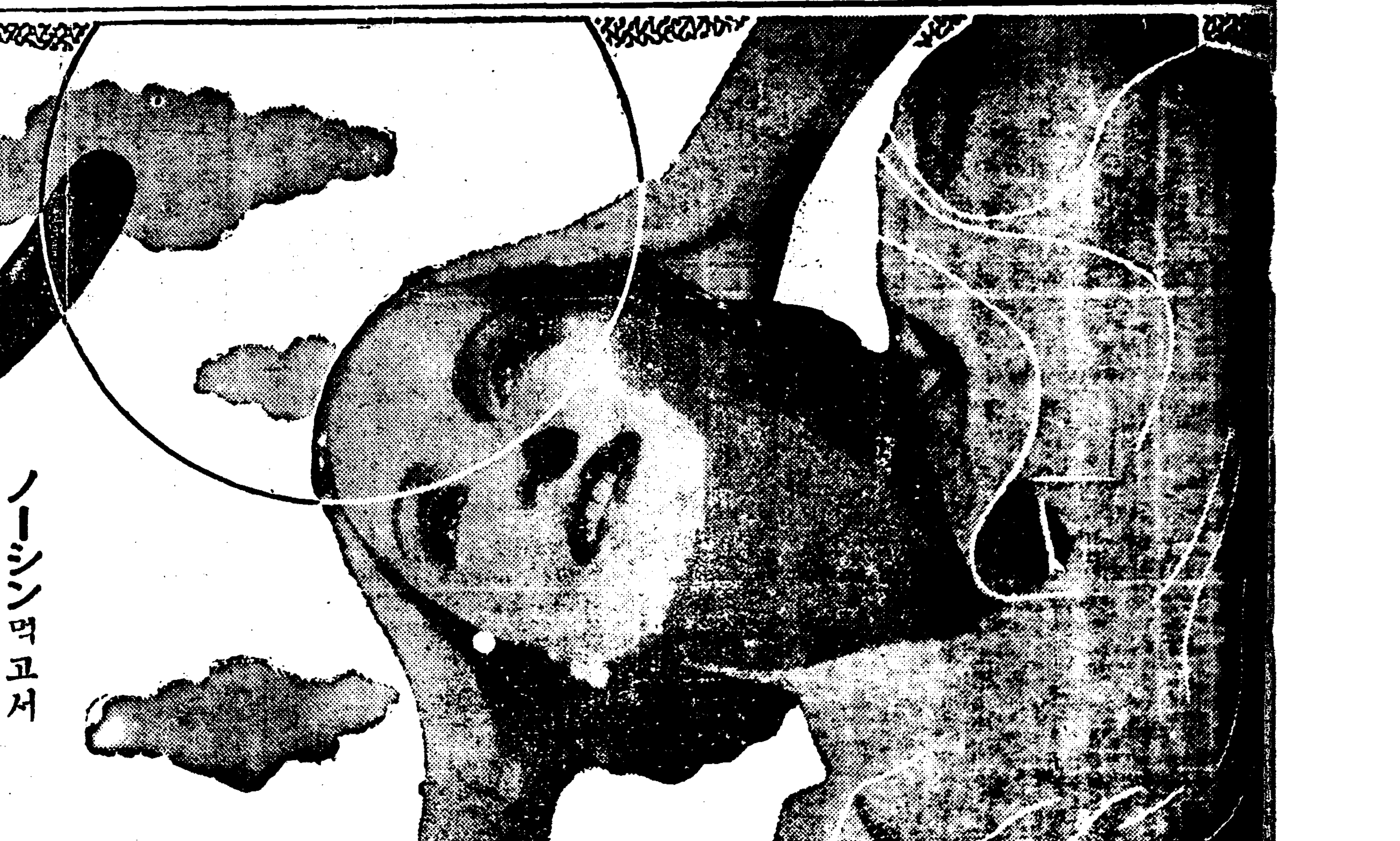
해는 바뀌어서 평동의 어느집에서 황홍의 주례로 왕한과 창순의 결혼식이 거행되얏다 그들은 구차하고 세력이 업는터이므로 혼인식을 화려하게 할수도 업지마는 주의상으로、허례의 폐지라든 비용의 절약을 주장하는중이므로 스스로 먼저 그것을 실행하고 남에게 보급식히기 위하야 모든것을 간단하고 질소하게 차렷다 래빈으로는 남자측은 혁명당동부의간부 몃사람이오 녀자측은 향항으로부터온 봉숙이와 기외의몃사람이 잇슬뿐이엇다 그러나왕한과 창순은 사람으로서 평판이 조흔사람이오 유명한 미인이니만치 신문기자와 구경군들은구름가티 모아드럿다 식장은 화려하지 아니하얏스나 정결하얏고 성대하지 아니하얏스나 엄숙하얏다

질소한 례복으로 활발하면서 점숙하게 좌편으로 드러 오는것은 허헌장부이면서 미남자인 서왕한이오 청초한 의상에 물망초(勿忘草)로 수노흔 너울을 쓰고 들러리에게 옹호되야서 우편으로 부터 경쾌하면서 고요히 나오는것은 용맹과 지략이 겸비한 투사(鬪士)이면서 요조한 절대가인인 호창순이엇다 그들은 지우들의 던저주는 어지러운 꼿송이를 밧으면서 엄숙한 주례아래에 백년을 맹세하는것은 모든사람의 부러워하는 표적이 되야서 절하의 행복은 모다 그들에게 모은듯한중에 식을마추엇다

그들의 결혼식을 보는사람으로 칭찬하고 부러워하지 안는이가 업섯지마는 남보다 유달리 축복을 바드면서 부러워하는것은 봉숙이엇다 봉숙은 향항에서 처음으로 왕한을 대할때에 너무도 조흔인상을 바더서 글격하게 사랑하고싶흔 생각이 잇섯스나 기왕 자기의 친한동무인 창순이와 사랑하는것을알게되얏스므로 스스로 사랑에대한일은 단념하야서 그들의 결혼에 대하야 관심할바이 업스나 그러나 아모리 예기하얏든 일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사모하든 남자가 다른녀자와 결혼하는것을 보는때에는 유달리부러워하고 가벼웁게 십허들 늣기는것은 녀자로서 혼이잇는감정이라면 봉숙이도그러하얏다 그러나 봉숙은 그들에게 대하야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것은 아니엇다 다만 인격으로나 주의로나 모든점으로 보아서 이세상의 모든남자중에 왕한이만한 사람이 업다고 생각하얏다 녀자로서 왕한이가튼 남자와 결혼하지못할진대 차라리 독신생활을 하는것이 올흔일이라고 생각하얏다 봉숙은 왕한에대하야 평생을 정신상으로 사랑하면서 그의혁명사업을 도아주겟다는것을 다시 결심하얏다

模範的頭痛藥

ノーシン (노-신)



ノーシン먹고서 一分、二分、五分…

쪼개낼듯하게압흐든머리가선듯가벼워저서 아지못한새에우슴이저절로나오게되얏서요! 하늘은풀으고 구름은하연대 참으로머리도淸澄!

—安全第一—

ノーシン에는납분作用이업슴으로安全하고더구나頭痛뿐아니라執務、工夫、映畵、裁縫、夜勤한뒤에머리가疲勞하야서몽롱하게된것을씨슨듯이이저버리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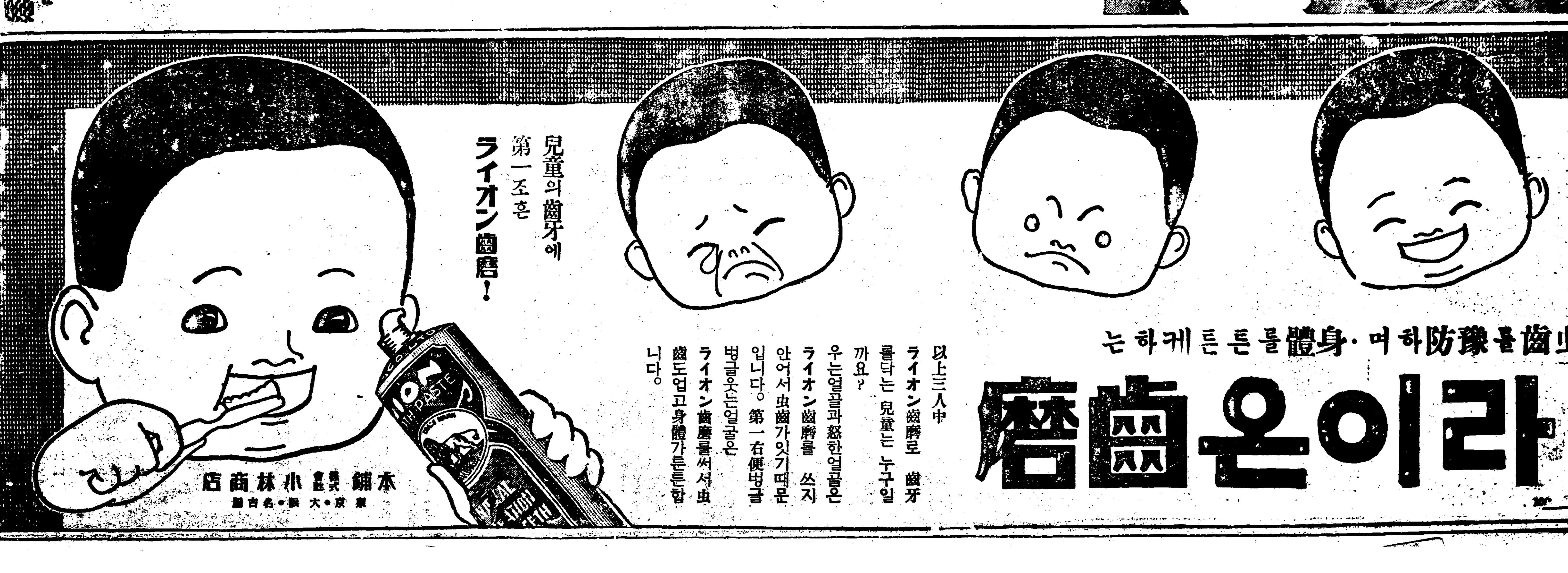
主効: 頭痛·偏頭痛 頭重·頭腦過勞 宿醉·頭內腦膜 眩暈·船車멀미

頭痛에第一、胃腸에無害

價 .20 .30 .50 1.00 2.00 ★各地藥店에有함

注意 ノーシン의信用이더욱더욱놉고賣行이旺盛함을보고類似品이만히나오나ノーシン이가진獨特한綜合的效果는決코ノーシン그것대로模倣은못할것이다

發賣元 荒川長太郞合名會社



黃水院江大水電
또野口系에認可
來年부터 實地測量에 着手
總發電力五十萬키로

【平壤】오래동안 세인의 주목을 끌고잇든 황수원강(黃水院江)수전은 목하 대재벌의 경원(競願)이잇서 과연 어느재벌의손에 너머갈지 흥미를 끌고잇든바 결국은 전조선 전력 통제방침에 의하여 최후 출원자인 야구(野口)재벌에게 주기로내정되여 느저도 명년정월중에 정식인가가 될것이라고하는데 이에대하야 야구계회사에서는 명년조춘부터 곳 실지측량에 착수하여 느저도 소화십이년도부터는 공사에 착수하게 되리라고한다 공사내용은 결이 업스나 삼백삼십척(장진강수전보다는 약이배)놉히의 대언제를 축조하여 칠백이십륙억만립척의 대저수지(貯水池)를 형성할터이라는데 제일과 발전량은이십이만「키로」로서제삼과가 완성되면 실로오십만키로의 발전량이라고하는데 동재벌의 경영인부전강(赴戰江)의이십만키로 장진강(長津江)수전의 삼십이만오천키로와 합하면 백이만 오천키로의 발전량이라고한다

泉峴公普落成式

【金村】파주군천현면법원리(坡州郡泉峴面法院里) 천현 공보교(泉峴公普校) 에서는 오는십륙일에 락성식을 거행하리라한다

平南道內宗教信者
四萬四千名

【平壤】평남학무과에서 조사한 도내의 종교신자수는 긔독교(基督敎)사만명 불교(佛敎)사천명으로 합계사만사천명인데 이것을 백삼십만인구에 비하면 무종교인이 얼마나 만타는것을 알수잇서서 세상소위 종교신자의 수가 적다는것을 증명하고잇다

江西地方農民들
租檢查에大不平
損失과不便莫甚으로

【江西】강서군하에서도 시월일일부터 정조검사를 실시하엿는데 그동안불과 일삭여에 농촌에서는 그폐단이 속출하야 농민대중에게 만흔 손해와 불평을 끼치고잇서 검사제에대한 원성은 날로놉하가는일방 당국의 철저한 개선방침이잇기를 바란다고 한다

平山郡下에서
百餘種古器發掘

【南川】지난 구월십구일 황해도 평산군평산면 산성리(平山郡平山面山城里) 박기영(朴技英)외삼인은 재전에서 흙을파다가 이상한첨사 강흔것이 나옴으로 그자리를 널리파보앗든바 백여종의 고기를 발굴하엿는데 이소식을 드른 남천 경찰서에서는 즉시 압수보관하고 총독부로보고하야 그처분명령을 기다리고잇다는데 발굴한 고기는 약삼

問題의四千圓은
講習所에寄附키로
妓生大會에서決議

【海州】긔보 해주기생들의 공동소유인 해주기생권번의 주권삼백이십주(시가 약사천원)처분문제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기생들의 일파와 그들의 포주(抱主)측의 일파가 서로 대립되여 분규를 이르키고잇섯는데 기생측에서는 지난십일 오후세시반경부터 읍내남본정동흥관(東興館)에서 기생의 전수인 사십륙명의 기생이 회합하야 기생대회를 개최하고 전긔 주권처분문제에대하야 토의한결과 해주권번을매각하야 무산아동의교육기관인 해주 수양강습소(海州修養講習所)에 긔부키로결정하엿다한다 그리고 전긔주권을 매각하야 전긔강습소에 긔부행위를 완료하기까지의 처분정도문제는 다음의실행위원오명을 선정하야그 실행위원과및 해주신문기자단(新聞記者團)의 관계자등에게 일임하엿는데 일반사회에서는 근래에드믄 이기생들의 미거에대하야 깃붐에사못치는 마음의박수를 보내고잇다한다

◇實行委員 金雲仲仙 池桂仙 林笑紅 尹明姬 崔楚玉

大浦港에서
오케ー演奏會
本報支局後援

【大浦】현하전선각지로 순회연주하는 오케ー악단 삼십여명의 회형가수를 마지하야 대포십자당(十字黨)악극연주회와 본보대포지국후원으로 연주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사정으로인하야 시일을 다음과가티 연긔하엿스며 본보대포지국에서는 이를계긔로 관내독자에게우대할인권을 발행한다고 한다

一、時日 十一月十六十七日(兩日間)
一、場所 大浦港 假設劇場

賭博團大檢擧
甕津署員活動

【甕津】황해도 옹진경찰서에서는 관하의 도박단을 검거코저 활동중이든바 면칠전에 동남면 장좌리(東南面長佐里)로부터 원용환(元容煥)외 네사람을 검거하야 류치시키고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들은 지난 음력팔월이십일경에 원용환이가 동리사는 김순형(金順亨) 최인순(崔仁順) 당장리(堂場里)윤일만(尹日萬) 마산면 양암리(陽岩里)류주호(柳周鎬)등 네사람을 자긔의 정미소로 유인하야 원용환으로부터 김순형에게 백원을 대부해주어 그돈을 논아가지고 일회에 일원이분 십이원식을 대고네번에 일백이십팔원을 사긔도박으로 도박하야 사십팔원과 일회에 이십원식 살전을 대게하야 사회분 팔십원 전후팔회에 궁하야 사취하고 또일회에 백원식사회 회분 사백원을 대부하야 중과동서에 김순형으로부터 지불증서를 맛고 또그후에 곡전(穀錢)으로 사백원의 증서를 바든놈액이 전후 팔백원에 달하는데 전 농회이가 그돈을밧기위하야 지불명령의 수속을 하랴는것을당국에서 탐지한바되여 그와가티 검거한것이라는데 그외에도 피해자가 만흘듯하야 엄중취조중

統營近海에暴風
船夫四名이遭難
一名救助三名行方不明

【統營】지난 륙일 연양면 자사리를 중심으로 근방의 해변에 폭풍이 부러와 만흔어선이 이초을 당하여 마츰 출어중이든 선부네명중 한명만은 겨우 구조하엿스나 갓치탄 어부 삼명은 행방불명으로 극력수색하엿스나 발견치 못하엿다는바 동승자림재한(林在漢)(三六)림향이(林香伊)(三三)와 김중룡(金中龍)(二三)이라한다

平海漁業組合
新築落成式

【蔚珍】강원도평해후포항(平海厚浦港)에잇는 평해어업조합(平海漁業組合)에서는 종래사용하든 사무실이 협착하야 사무에 불편이 막심하든바 거액의공비로서 사무실급 공동판매장을 신축공사케 착수하엿든바 준공되여 오는구일오전 구시부터동 회의실(會議室)에서 신축락성식을 성대히 개최한다는바 당일은 마츰 후포축항이기공사기공식(厚浦築港二期工事起工式)이 잇서서 여러가지 자미잇는 여흥도잇다고한다

病身子息을—
毒殺未遂한어미
警察에被檢嚴調中

【光州】보성군복내면(寶城郡福內面)에 거주하는 박대아(朴大兒)(二七)는 그외 불구의아들을 나리고 이집저집으로 고용사리하다가 드되여 폐고되여그날 그날의 먹을것도 업시되매 자라리 죽어버리면 자긔나 편할것갓다는 마음으로 독약을그 병신아들의밥에 너어먹엿든바그 아들이 고민하는것을본 어미는 모성애(母性愛)에 이끌려울며 불며 병원에다려다가 응급수당을 하야 죽엄을 면케되엿는바 경찰에알니여 화순(和順)경찰서에서 검거하야 살인미수로 엄중 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校舍增築記念
빠사大會開催
普興女學院에서

【會寧】회령읍사립 보흥녀학교(私立普興女學校)에서는 종래의 교실이 협착함으로 학생수용에 무한한 곤난을 바더오던바 지난 구월상순 부터 교실증축을 증축하기 시작하여 근일에 준공하게 됨으로 동교에서는 교사증축 긔념으로 오는 십사、오량일간 동교강당 내에서 작품전람과 빠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엿는데 당일에는 특히 교실내에 림시 식당부를 개설하야 일반 관람자에게 정식을 판매하는등 제반 시설이 충분함으로 당일에는 전회녕일반의 관람이 잇게되여 동교 개교이래 처음보는 대성황을 일우리라고

媤母와子婦反目
母子가一時自殺
어미는飮毒、子는石壁서떠러저
鳳山郡德在面의慘劇

【沙里院】시어머니와 며누리사이에 불목이 사랑하는 외아들에게까지 미치어 어머니와 아들이 일시에 자살한 세상에업슬 참변이 잇다 봉산군 덕재면 덕성리(鳳山郡德在面德城里)오백구십이번지에 사는 박홍서(朴洪緖)와 처(妻) 조씨(趙氏)(五二)와 그외 외아들박찬현(朴贊鉉)(二一)은 모자가 말다툼끗해 감정이 격화되야 일시에 자살을 하엿는데 자살하게된 원인은 전긔 박찬현의 친모 조씨는 며누리 허씨(許氏)(朴贊鉉의妻)와 항상 불목이되여 충돌이 종종잇서오든중 지난칠일에 며누리가 그 린근에 잔치집에가서 상을바다 온 음식을 시모가업는새 먹어 업샛다는것이 싸홈의 시초가되여 시모와 며누리사이에 충돌이 격화되엿는데 그외아들 전긔박찬현이가 그외처를 도와말한다고 분개하야 집에잇는 서슬(?)을먹고 자살하매 아들은 어머니가 절명함을보고 뛰여나가는것을 동리사람들이 뒤를조차 만류할려는 순간에 돌연 석벽(石壁)에 떠러저 비참히 자살하야 일가의모자가 한때에자살한 변사가잇섯는데 처와아들을 일흔 눈물의 겨워잇는박홍서의 참경은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먹음게한다고한다

十六歲少婦의
男便毒殺未遂

【淸州】조혼이나흔 불행한 살부미수사건 청주군가덕면상야리(淸州郡加德面上野里)에 현재남일면가산리(南一面佳山里)에 두고 사는 주소를둔 정수(鄭洙)(?)의 처김연(金年)(?)은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 전긔정분에 잇는 누리로 드러와서 그후에 정식 결혼식까지 거행하엿스나 원래 조혼의관계로 성(性)에대한 관념이업서 항상남편을 실혀하야 자긔친가로가고자하나 남편이노치안니함으로 김씨는 엇지하던지 친가로가라는일념으로 지난 삼일오후칠시경 도토리묵에다가 양재물을 혼합하야 남편을독살하라한것이 남편에게 발각되야 드듸여미수에끗치고 마럿는데이사실을 소활남일주재소(南一駐在所)에서 탐지하고 전긔김씨를 청주경찰서로 인치하야 살인미수죄로 방금취조중이라한다

基督青年會主催
陸上競技
十六日芝公園서

【東京】동경시신전구 원락정(東京市神田區猿樂町)에잇는 재동경조선긔독청년회체육부 주최 본보외 삼사신문동경지국 후원하에오는 십륙일(토요일)오전팔시부터 제이십칠회 추긔륙상 대운동회(秋季陸上大運動會)를 지(芝)공원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여방금 준비에 분망중이므로 발서부터 대성황을 예긔한다는바 대회임원은 다음과 갓다한다

一、總務部 韓晛相 尹 權 鷹
一、審判長 崔在斌
定煥 崔錫柱 金昌殷 金玉南
一、決勝審判係 金恩培 趙寅相 金正淵 李聖德 朴慶元 李王述
一、出發係 金泰浩 崔相斗
一、進行係 趙晟基 金鉉國 朴日燁 金仁龍 朴容七
一、計時係 張聲根 金麟永 李翼化
一、記錄係 張日弘 金東植 崔龍振 張益敏 南廷麟
一、司令係 尹炳玉 吳世徹 李萬鎬 金明浩
一、監察係 洪思哲 朴孝相 李喜烈 金杜憲 趙東祐
一、施賞部 金東進 申浩均 趙漢用 金浩永 洪宜 裵信煥 林南山 姜永德
一、新聞部 金正實 沈貞燮 沈亨永 高鳳韶 韓曉相
一、設備部 李昌麟 李周永 金奉吉 李亨求
一、寫眞部 徐廷來
一、衛生部 金澤燮 林信華
一、接待部 申四勳 朴鳳根 李基榮 禹三興 朴聖珠 郭學龍 曹正權 具東植 金海龍 南廷子 元玉淵

異次頓의死 【39】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이차돈의 말에 그로인은 놀라는빛을 보이며

「이차돈 한마로어손의손자?」

하고 한번 노이고,

「여긔서는 길게 말할수 업스니 내집으로 갑시다。나는 메주(明珠)요」

하엿다。

이차돈도 이말에 놀리면서

「메주한가(明珠大加)시요?」

하고 물엇다。

「그럿소」

하고 메주한가는 말을돌려이차돈더러 오르라하엿다。

이차돈은 거울보고의 손에서 활과창을 바다듯고 말께오른다

「먼저 가오」

하엿다。

메주한가가 말을타고 고삐를 채니 청년들은 모다 허리를굽혀서 인사한다。

메주는 고구려 장수왕의 둘재 아들이오 문자명왕의 아버지고 고추대가(古鄒大加)의 아오요 지금 왕의 종조부다。명장으로 고구려 문자명왕(文咨明王)때에 신라 비추마리한(麻立干)이 록은 원수(보해왕자를 볼매로 다려가고 노아주지아니하야 박제상=堤上=가 가서 빼어온일)를 갑는다하야 대군을 몰아서 살여울까지 몰아갓슬 때에 아직 삼십도 못되던메주가 그 무서운 칼로 물리친 일이 잇다。그래서 신라에서는 고구려의메주한가가 죽기전에는 고구려와 싸오지는못할것 가리 생각하리만큼 그만큼 메주한가는 신라에서 두려워함을 밧는사람이엇다。이차돈은 이 무서운 신라의 적장을 따라가는것이엇다。

메주한가는 광개토왕이래로 고구려가 문약에 흘러 큰 인재가 나지아니함을 한탄하야 해마다시월 상사일이면 몸도 미복으로 재조겨루는「편싸홈판」에 나와다가 그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보면 골라내어 더욱 재조를 가라치고 나라일을 맡하는것이엇다。이날에도 메주한가는 편싸홈판에 나와다가 이차돈의 재조와 용긔와또그 지혜를 보고 놀랍게 생각하야서 집으로 다리고오는것이엇다。

메주한가의 집은 바로 만수대 대궐 압에잇섯다。그는 임금의종조부요 선생이오 놉흔 대신이면서도 퍽 검소한 생활을하고 잇섯다。집은 나라에서 하사한 것이라 으리으리하고 크지마는 메주한가가 거처하는 방에는 오직 활과 칼과 창과 갑옷과서책이 잇슬뿐이오 방안에 사치한것은 하나도 업섯다。

메주한가는 이차돈에게 자리를 권하며,

「크게 놀랏신 손님이 오늘 내집에 임하섯소」

하고 공손히 다시 주인이 손님에게 대한 례로절을 하엿다。

이차돈도 일어나

「이몸의 한아버지와 가트신 나이시오 이나라에놉흐신 자리에 계신 어른께 인사를 드리오」

하고 절하엿다。

메주한가는 하인을 불러 술을내오라 하야 이차돈에게 술을 권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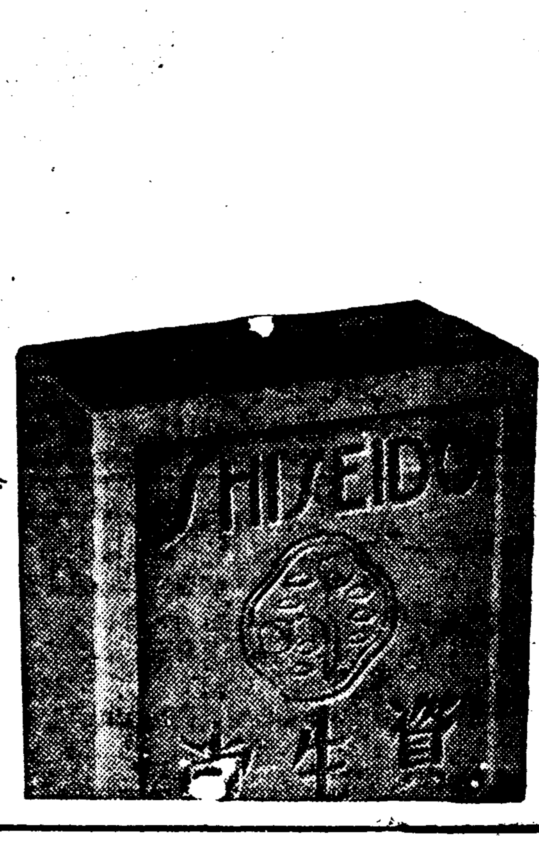
「이몸이 아즉 만나 뵈온 일은 업스나、한마로이손의 놉흔 신 이름은 일즉부터 들엇고 또 이차돈서방님이 재조가 비범하신 줄도 벌서 들엇소。또 너른나루 지키의 보고로 서방님이 평양으로 오신 줄도 알엇스나 만날 긔회가 업서서 긔회를 기다리던 중에 오늘 놉흔 재조를 뵈옵고 이러케 내집에 오시게 되니 이것은 다 하늘이 지시하시고 왕검한아버님이 지시하신것이오。우리네가 지금 고구려니 신라니 또 백제니 하고 세 나라로 갈리엇지마는 본래는 한 조상의 자손이 아니오? 북에는 한족이잇서 우리 고구려는 거의 오백년을 두고 다토다가 다행히 이몸의 한아버지 광개토왕의 힘으로 한족의 손에 들엇던 고토도 거의 찻고 또 한 나라가 망한뒤에 위니 량이니 하는 여러 나라들이 생겨서 서로 한토의 패권을 잡으랴고하는 모양인데 통일에 저들이 통일한 나라를 이루는 날이면 또한나라에서 일흔 땅을 찻는다하야 우리를 건드릴터이니 그때에 우리는 또 한족과 싸흘날이 될것이오。이런 형세를생각하면 우리네 가튼 조상의자손네가 네오 내오하고 싸홀때가 아니라 하오」

商標登錄 거북선
고무신온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電光一一五九

筆生
遠近男女의分明업시自宅에서꼬되는趣味와實益兼備한副業으로婦人과女子에게最適한일이요無休永續할일입니다 詳細는엽서로乞申込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記憶力을增進하는 はれやか(하레야카) 【腦藥增進 頭腦快復】●
痔는 オセロ(오세로) 痔藥으로 自宅에서治療
三〇 五〇 各地藥店에有함

資生堂洗濯石鹼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닌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음안남기고 쓰기조타
一 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東京 銀座 資生堂

經濟解說 朝銀券撤收와 ● 對滿關係者考察

中國의 幣制改革을 中心으로하고 國際間의 關係가 이렇듯한 이때에 一面으로 滿洲幣制統一의 決定과 이를 따러서 滿洲에서 오래동안 流通되어오든 朝鮮銀行券을 滿洲에서 撤收치안흘수가 업게되것이 오즉에서 問題가 되여잇다 그러면 朝鮮銀行券의 滿洲流通이 果然 얼마나 撤收케되겟인가 또는 그렇케될때에는 朝鮮銀行으로서는 어떠한 影響을 밧게될가 그러고 이로해서 朝鮮經濟界에는 얼마한 波紋을 보게될가 함이 目下에잇서 與味를 갓게하는 點이다

×

이것을 말하기前에 먼저 簡單히 朝鮮銀行券이 어느때로부터 또는 어떠한 動機알에 滿洲에서 流通되어오기를 시작하엿는가를 먼저 좀 이켜 볼 必要가 잇다 이에對하야 朝鮮銀行史를 들추어보면 다음과가티 쓰여잇다 即

朝鮮銀行이 滿洲에 손을대이기 시작한때는 安東縣에잇든 第一銀行을 引繼하여가지고 이곳을 그出張所로 맨든때부터이다 그뒤 日滿經濟交通關係의 密接과 朝鮮의 對滿貿易이 날로 發展되고 딸어서 日本勢力의 伸長과 商權의 擴大는 滿洲의 金融上 施設이 緊要케 되엇다 그러고 一面으로 當時 朝鮮의 對外貿易은 年年 逆調가 繼續되야 이決濟가 朝鮮經濟上 重大問題로 되엇다 그래서 이根本的解決策의 그하나로 朝鮮銀行은 輸出超過인 滿洲에서 輸出手形을 사드려 朝鮮에서 支拂對外債權을 滿洲에서 어든對外債權에依하야 그一部를 充하는手段을 取할必要를 늣겻다 이런點으로서 大正二年七月에 奉天、八月에 大連、九月에 長春(지금에는新京)等에 朝鮮銀行支店을 設置하엿다

×

그런데 이때에 日本內地人의 對滿投資가 旺盛케되야 關東州及 南滿地方에 進出하는사람의 數가 늘엇다 또 日露戰役後 正金銀行이 發行하는 金券은 勿論 朝鮮銀行券도 亦是 滿鐵沿線地方으로 日本銀行券은 滿洲의 南北에서 流入하야 漸次增大되는傾向이잇섯고 一面으로 各種取引에 使用되엿다 그래서 朝鮮銀行은 그營業所를 政治經濟上의中心地 또는 特産物集散市場에 增設하엿다 그뒤 大正六年十一月 日本政府는 滿洲에對한 金融機關을 統一하고 根本的으로 日本經濟의 基礎를 세울目的으로써 東拓會社法을 改正하야 東拓의 事業資金을 供給케하는同時에 橫濱正金銀行으로하여금 主로 外國爲替取引及貿易金融을 擔當케하고 一面으로는 朝鮮銀行에 對하야 一般商業金融機關으로 全然 金建 取引의 擴張에 當케할方針을 確定하엿는바 그實行에對하야는 (一)滿洲의 國庫取扱事務는 大正七年一月一日以後 朝鮮銀行으로하여금 이에 當케하고 (二)朝鮮銀行이 發行하는金券(朝鮮銀行券)에는 關東州와 滿鐵附屬地에서 强制通用力을附與하며 (三)正金銀行이 發行하는 銀券은 依然發行케하엿스나 强制通用力을 附與치안흔點等이엇다 이러다가 大正六年十二月一日로부터 滿洲의 金券統一로 朝鮮銀行은 商業金融에對한 中心機關인 地位에 잇게되고 또는 橫濱正金銀行이 發行한 銀行券을 朝鮮銀行에서 引繼하야 朝銀券으로써 밧구엇슬뿐만 아니라 正金銀行의 支店 事務其他의 全部를 朝鮮銀行으로 移管하야 하고말엇다

×

以上의經路로써 朝鮮銀行은 滿洲에잇서서 金融機關으로 偉大한增勢를 가지고잇는 同時에 朝銀券의滿洲流通도 擴大한 勢力을 掌握한結果를 보게되고 딸어서 朝鮮銀行券의 滿洲流通高는 날로 늘어간다 그래서 朝鮮銀行發行高에잇서 그 三分二가 滿洲에서 流通되고 그三分一이 朝鮮內에서 流通됨에不過하다는 想像의말까지 傳케되엇섯이다 어떠튼지 朝鮮銀行券은 滿洲에서 流通됨이 相當한程度에 達하는것이事實이며 딸어서 朝鮮銀行은 滿洲經濟와 거의不可分의 密接한 關係를 맺고잇서 오는것도 事實이다 (續)

突然米價가暴騰!

日本內地米收穫一部豫想 百四十萬石減으로

日本內地米二回收穫豫想 十月末日現在 宮城縣外十六府縣의分은 一千八百二十四萬八千二百六十石으로 一回豫想보다百三十六萬六千九百四十石減少의 大凶作發表이엇슴으로 休日을 지난十一日의 期、正米市場은 如左히 一齊爆發이엇다

各地期米先限比較

	九日後引	十一日前寄	比較
大阪	三〇八	三〇三〇	五二高
東京	三〇一〇	三〇四五	三五高
神戶	休會	二九五	―
下關	二九八	三〇五	七高
名古屋	二九八四	二九四二	四二高
朝取	二七八三	二八四三	六〇高
釜山	二七八五	二八二五	四〇高
大邱	二七八五	二八二九	四四高
群山	二七八〇	二八二四	四四高

朝鮮各地正米比較

木浦		二八二五	二八七〇	四五高
京城	丸仁三等	二七九五	二八五〇	五五高
仁川	同	二七九五	二八五〇	五五高
釜山	角フ三等	二八〇〇	二八四〇	四〇高
大邱	同	二八四〇	二八五〇	一〇高
群山	菱ク三等	二八〇五	二八五〇	四五高
木浦	丸木三等	二七七〇	二八二〇	五〇高

凶作地의 糧米給與 非常手段發動?

【東京電話聯合】 農林省에서는今年度의 米穀收穫이 意外로 減收가 豫想됨으로 半作以下地方도 全國的으로 보아 相當히잇스리라하야 이를 救濟할目的으로 糧米給與의 非常手段發動을 必要를痛感하고 農務局에對하야 半作以下의全國市町村調査를 命한것은 昨年臨時議會에서 農林省提案通過를본 臨時政府所有米交附法과 內容이 類似한것을 緊急勅令으로써 斷行할는지 또는 其他의 新規方法으로 半作以下의 凶作地救濟對策을 講究하지안흘가 觀測되다 即 北海道 青森 秋田、岩手、宮城、福島、茨城、栃木、群馬及新潟의 一部等地는半作以下의 市町村이만허 飯米가 不足되는狀況은 昨年度와가튼 事情에잇는 關係上 昨年의 交附法을 그대로適用한다는 主張도省內에잇서서 第二回豫想收穫高의 最後의發表數字와모든狀態를 硏究한後 最後의斷案을 나리려하고잇다

農省管內凶作 朝鮮米移出增豫想

今後政府態度를注目

【東京電話聯合】 米第二回豫想收穫高는 豫想外의 大減收로 今年米作도 亦是大凶作은 免키어려운 情勢로 되바 이것이 外地米關係에 큰 變化를 招致할것은 當然하야 米關係者의 注視가 集中되다 即 凶作의 現狀에잇서 今年 米穀年度의 需給關係는 前年度以上으로 豊足치못하야 米價高는 今後繼續케될것이다 그結果 朝鮮、臺灣等外地米의日本內地移入을 活潑케할것은 容易히 想像되다 이것은 이미 凶作에잇서서 外地米가 매우有利한地位에잇고 日本內地農民의犧牲으로 外地資本이 過度한利益을 享受함을 말하는것이다 그런대 農林省은 來議會에 米穀自治管理法案을 提出하라는 日本內地外地一貫한方針에基하야 民間에서 自治的過剩米穀의貯藏統制를 하라는것이며 凶作에依하야 日本內地農民은 그負擔을 過度히안질수가 업는 處地에잇다 即 外地米의 日本內地移入激增으로 立案한 米穀自治管理法案의 威力은 日本內地凶作의 境遇 外地에 對하야 發揮치안는다는 逆現象을 보게될것이므로 結局 外地米對策이 確立안되면 米穀問題의 根本解決은 不可能함을 意味하고 農林省은 이 一變한 米穀事情에 直面하야 어떠한 對策을 取할가 特히 外地米에 對한 諸問題를 어떠케 取扱할가함이 議會의 問題로 日程에 올르게될것이라고한다

朝銀券撤收 附屬地外開始

▲…松田朝鮮銀行理事談

滿洲國을 視察하고 도라가는길에 十日 入京한 松田朝鮮銀行理事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滿洲國의 幣制問題로 그동안滿洲國中央銀行과 現地交涉을 하엿슴으로 歸任이 느젓다 朝銀券의 撤收에依하야 朝銀의 營業에 大打擊이 잇슬것가티 宣傳되지만 그처럼 打擊은 업슬것이다 이問題로 朝銀의 滿洲支店이 撤收되는것이 아니라 滿洲國政府는 多年의 地盤關係上 積極的으로 營業을하도록 要望하고 各地에서도 進出을 希望함으로 돌이혀 今後支店을 增設케될는지모른다 中央銀行은 이에依하야 普通銀行業務를안하게될것이다 그러나 地方에딸아서는 現在百數十의 分行이잇서 이것은 그대로두게될것이나 主要地에는 原則으로 普通業務를 안하게되고 朝鮮銀券의 撤收는 爲先附屬地以外에서 시작하야 漸次附屬地에 밋치게될것인데 이것을法制的으로 매여노치안코 兩行의 協定에依하야 實行할려이다 그러고 關東州는 同問題에는 一切關係치안코 從來대로되며 國幣對金圓의파ー維持에 對하야는 여러가지의 見解도 잇스나 滿洲國側의 財政狀態로도 日本의 이에對한 모랄·사포트에依하야 大體維持할수잇는것으로 생각하는바 相當한 難問題로 滿洲國의 爲替管理를 嚴行치안흐면안될것이다 만약 이로써안되면 때로는 假令金이라도 不斷할 精神的緊張이 必要하다 어떠튼지 兩行의協議는 十一日부터 東京에서 열림으로그에依하야 一切解決될것이다

現銀引渡拒絕 漢口各銀行이

【東京電話電通】 三浦漢口總領事로부터 十一日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依하면 漢口各銀行은 國有令에 基하야 現銀의引渡를 拒絕키로 決하엿다 그러고 在漢口英國銀行도 十一日까지 中國側과 同一한 步調를 取하고 잇슴은 興味를 끄으는 現象이라고한다

殖銀鰮資金 未曾有增額

今年內限度擴張?

殖銀取扱의 北朝鮮鰮資金은 今年에 初有의 豊漁와 市勢昂騰으로 未曾有의 增額인데 十日現在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前渡資金	三、五〇〇
仕込資金	八〇〇
共同購入資金	二〇〇
合計	四、五〇〇

鰮資限度에 對하야 共同資金은 出漁하고 仕込金은 八割、前渡資金은 八割五分에 達케되야 年內에는 各資金을 모두各限度의再擴張케될모양이라고한다

茂山製鐵所計畫

資本金二千萬圓

茂山鐵鑛開發은 三菱鑛業에서三百萬圓을 投下하야 探鑛과 磁力風選兩選鑛設備의 計畫이 進行中인데 이번의 宇垣總督渡東에依하야 軍部、商工、拓務關係의 諒解下에 朝鮮에 製鐵所新設이 具體化키로 되엇는데 茂山과 如한 大鐵鑛의 開發에는 製鐵業參加를 要하나 製鐵合同에 參加한 三菱으로서는 統制破棄의 新製鐵所建設에는 進키難한事情이잇서서 從하야 會社에서는半製品工業化와 計畫인바如斯한것이 非能率的인것은 明白하야 이에對하야 製鐵國策을 抱懷한 總督府가 進出하야 北朝鮮에 製鐵所建設에 關하야 日本內地는 折衝을 하고잇다。製鐵所建設의具體化는 總督歸任後의 工作으로 日本內地關係로 迂余曲折을 難免이오 實現에는 相當한時日을 要할것이데 大體 三菱資本을中心으로 朝鮮內 中小資本도 加하야 資本金二千萬圓程度의 新會社가 北朝鮮에서 茂山開發과 製鐵、製鋼을行케될모양이라한다

北朝鮮經由 貨物連絡

不遠成立機運

【東京電話聯合】 北朝鮮經由의國鐵과 滿鐵의 貨物連絡輸送問題는 船車連絡에基한 船會社의選定方針으로 鐵道省과 滿鐵間에 意見이 對立하야 一時交涉이 頓挫되엇스나 最近 兩者間에 妥協機運이 잇서 十一日부터 四日間 箱根에서 鐵道省主催알에 日滿線 貨物連絡運輸會議를 열고 會議는滿鐵、鐵路總局에서 諸富貨物課長以下 鐵道部員 出席 船會社側에서는 大阪商船 日本海汽船、北日本汽船各代表가 出席、最後的協議를 하기로 되엿다 滿鐵、鐵道省側이 모두 熱意히 妥協的으로 되야、滿洲에 適合한 滿洲經濟建設과 商權의 伸張 滿洲經濟運輸의 實現도 不遠케될것이라고한다

琺瑯鐵器統制

第一回會談內容

日本內地側具體案提示言約

朝鮮으로부터 輸出되는 琺瑯鐵器에 壓迫을 感한 日本內地業者로부터 琺瑯鐵器의 販賣統制要望이이러나 日本內地側代表西邦琺瑯鐵器組合理事 辻永又次郞氏以下의 朝鮮對策委員과의會見은 九日午後釜山商品陳列所에서 總督府로부터는 星子技師立會 朝鮮側同業組合長 四居順造氏以下가 出席하야 相互意見交換을 하얏는바 日本內地側의 意見은『朝鮮은日本內地의 統制에 應할 意向이잇는가 업는가』를 뭇고 朝鮮側으로부터는『勿論日本內地와朝鮮統制의 本方針에는 異議가업스나 問題는 그方法如何에 잇슴으로 具體的方法을 示하기바란다』라고 回答하얏슴에 對하야 日本內地側은 아직具體的方法을갓지못하얏슴으로 追後 이를提示하기로하고 第一回의 會談은意見交換으로 맛치엇다 그리고日本內地側에서는明十二日西部琺瑯鐵器組合總會를열고 右에關한具體案을 決定하야 다시朝鮮側業者와 折衝을開始할려이다

○滿洲國實業部拓務課新設=總督府外事課에 드러온 報告에依하면 滿洲國實業部에서는 이번同部內에 拓務課를 新設하고 農政課長野田理事官이 同課長을 兼任、開墾及土地利用 農業土木、農業水利、移民의營農、定着에關한 事項을 取扱키로되엇다고

○朝鮮郵船傭船=朝鮮郵船會社에서는 不遠明海丸(五〇〇〇噸)을 傭船하야 西朝鮮方面의朝鮮米의積載를 하게되여 目下監督當局과 折衝中이라고

○東拓江西干拓開墾工事完成=東拓의 江西干拓은 移秧可能地二千町步의 開墾工事가 最近完成되야 來年度부터는 移民의 農事改良에 全力키로되바 現在의 移秧面積은 約一千町步로 그移民도 現在六百戶에 達한다고

○矢島農林局長歸京=米穀對策調査會에 列席으로 帶東中이든 矢島農林局長은 七星醫을 帶同하고 十一日東京發 十三日歸任할 豫定인데 石炭鑛檢所長은 二三日間 늣질모양이라고

經濟界消息

藤本「빌뿌로카」도 京城에 支店開設

京城에進出키로 決定한山一證券에서는 近間認可되는대로 支店을 開設하겟는데 이미事務所를 旭町「빌딍」에 豫約하고잇고 支店設置를 調査中이든 藤本「빌뿌로카ー」도 京城에支店을 開設키로 決定하고 目下事務所等을 物色中이라한다

商議改選後 初總會延期

副會頭問題로

京城商工會議所副會頭問題는 田川派와 戶島派의 暗中飛躍이 猛烈하야 이대로放置하면 將來에 禍根을 남기게되리라하야 九日에 松井、谷、韓相龍의 三特別議員이 兩派로부터 各三名식招致하야 調停懇談한結果 會頭、副會頭、常議員共히 特別議員에게 一任키로 되엇는데 十一日에는 異論이 또생기어 形勢混沌이엇고 十一日午後二時 議員改選後의初總會는延期되엇섯다。

商況(十一日)

株式 一段高나 伸惱

前場昂高 出超激減、上海事件突發로 今前場은 低寄이엇스나 押目買物이 優勢하야外上進되어 結局再昨前引보다 東新一圓二十錢高인 百六十一圓二十錢 日産八十錢高인 七十九圓二十錢 大新四十錢高인 九十七圓二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三十二圓八十錢에 各大引、拓新十五圓五十錢이

棉花繼續强調

棉花共販은 八日 建値基準價六十二圓九十一錢으로 强調가 繼續되야 一等棉十八錢四、五厘의市勢인데 今年의 가을天候가 良好하야 期初의含灌을 一掃하고 出廻順調와 品質良好로 九千萬貫突破는確實케될모양이라고한다

實物株前場取引

▲金剛電鐵新三四〇▲京南鐵道三三〇▲日産新二三五▲南朝鐵(?)▲東邦電力三五〇▲朝鮮開拓二〇(?)▲大同産業二〇(賣買二〇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電通】 後半株式高에伴하야 買氣强하고强調를呈하얏다 佛貨四分利 一八六·一五

年末市勢如何

十一月도거운 半이나지난 지금에잇서 市勢의 目標는 年末市勢가如何할가가 問題이다。

첫재金輸出再禁止與否 둘재財政豫算案 셋재貿易 넷재政治外交情勢인바 此等은 前번好市勢時에 조흔部分을 高唱하얏스니 今後의問題는 此等의再檢討이다。

그리하야 市場은 年末市勢를 期하야 市勢는 複雜하고 同時에 往來市勢이기 十常八九로서 崩落、反撥東否未判然 市勢가繼續縱橫上下、左右모든 角度로檢討되다가 新材料를 接키나바랄것갓가는小市勢이잇다。

百六十圓再乘 東新地味强硬

十一月高의 期待가新東로부터中國幣制改革問題로崩하고 增産懸迫에對하야 人絹은 六十圓割되는 危殆地境으로 人絹株의惡氣流、增稅急煽等으로 不勢이엇고 一段百六十圓割이엇스나 出超激減 上海事件 突發에不拘코 다시百六十圓臺乘은 注目된다 東新의 玉整理는 不充分하나 그래도잘떠러지지안코 버듸니 百六十圓中心鐵練이 繼續되면 强하다고 볼수잇슬것이다。東新百六十圓臺를 一個月이나 持續하면서雜株整理低에對抗하고 賣方에게 有利한 情勢임에不拘코 잘떠러지지안흠엇은 財界根底가 變化엇서 市場人氣가賣氣配에 步調를 맛치지안코 突込賣는 警戒하며 押目買氣로 下支된때문 이라하

上海事件重視

中國幣制改革으로 日中關係가 險惡한 이때에 九日夜 上海에서 日本陸戰隊 水兵이 中國人에게 狙擊되어 卽死한事件이 突發하야 上海事變가 重大化한바 이로因하야 日中關係는 一層複雜케되어 今前場은 寄付에 貿易出超激減과 相俟하야 低寄이고나서 押目買로 一段高를 示하야 東新 百六十圓臺를回復이엇스나 上海事件의 今後가 어떠케될지 新材料나가 생긴세음으로 이것이 動機가되어 或은 第二의 上海事變이나 되지안흘는지 자못重視되는터이엇다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六十一圓二十錢、日産七十九圓十錢 大新九十七圓二十錢、朝新三十二圓九十錢에 保合寄後 細鑿으로 東新一圓十錢、日産九圓二十錢安 取七圓七十錢 拓新十五圓七十錢에 各大引

出超激減事情

上旬貿易은 出超가 겨우百四十八萬圓으로 激減되엇는데 輸出額은 半減되고不良이엇다。棉花羊毛等의 原料輸入期인즉 出超減은 當然하겟스나 輸出額半減은 자미업는 일이라겟고 지금까지 貿易好勢를 떠든데이만콤 今年의 總決算이 어떠할가를 보아야 할것이다

今日財界(十一日)

仁川正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期米 大減收로 爆發

前場暴騰 再昨後場에 大阪三十圓〇八錢止와共히 二十七圓八十三錢에止場한바 日本內地米二回豫想은 大凶作으로 休日中發表이더니 今前場은 大阪初寄三十圓六十錢인 五十二丁暴騰인 二十八圓二十九錢에 買物殺到로 保合후 販地伸惱하야 四十八錢止場에不拘코 四十三錢最高値에 止場하야 再昨後引보다六十丁高이엇다

後場一息 後場은 二十八圓四十六錢에 三丁高로 始場後二節四十九錢을 高値로 四十六七錢에 伸惱이고 四十三錢에 止場하다

日本內地米 大減收發表

買人氣灼熱!

大勢는 左右될것으로 보이든 日本內地米二回豫想은 前週土曜에 宮城縣外十六府縣分을 發表하바 一千八百二十四萬八千二百六十石으로 比一回豫想 百三十六萬六千九百四十石의 減少로서 前五萬三千二百四十一石의 減少이것으로 推算하면 今年米作은 五千六、七百萬石程度의 大凶作이되기쉬음으로 二個年連續凶作

凶作市勢展開 必然之勢이나

市場人氣는 今朝에 實物一帶景氣를 헤치어 大阪三十圓六十錢 當地二十八圓四十三錢의 高値에 奔上하야 大阪五十二丁高 當地六十丁의 大上放이엇다。

五千八、九百萬石의 豫想은 日本內地米二回豫想은 宮城縣外十六府縣分이 一回보다 七分의減少이엇슴으로 今年全體米作은 五千六、七百萬石을 推算케되는大凶作이다 月初以來 極少幅에서 保合이며 新穀賈를 기대리든市勢가 二個年連續의 大凶作을보게되고서 大上放을 演함은 當然한일이데 未發表인 青森縣、北海道等의 殘部發表가 어떠할지全部의 數字를보아야하겟지만 何如間 大凶作임은 틀님업게되엇슴으로 新米出廻의 實勢壓迫이라 敎勢力이作用하기는 어려울게되고 大減收로因한 凶作市勢가 波瀾的에 展開될것은 必然之勢라는 强氣論이 優勢케되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米收第二回豫想은 豫想外의 凶作을示하고 一次中에는 冷水害甚大의 北海道 青森岩手郡馬等은 含치 안어 此等을 換算하면 五千七百萬石程度의 凶作이 豫想되어 今朝는 場面이硬化되엇다

▲賣方 地場中東側 地場利喰

▲買方 地場 田中貞 株式側

各地正米

京城急騰 抬頭의 急反撥과 實物難인 日本內地의買氣熾烈로 丸仁三等二十八圓五十五錢急騰인데다가 氣配五十五錢急騰인丸仁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二十圓五十錢

仁川暴騰 日本內地 定期側의 買進을 豫想코 定期의急反撥移하야 俄然買人氣旺盛이오 氣配一氣로 五十五錢暴騰을 演한 丸仁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

群山躍騰 産地實 藉據濃厚로 實物이 激減인데다가 內地入注進拂과 期米의 躍進을 듯고 買氣沸騰하야 氣配一擧四十五錢暴騰을 演한 菱ク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二十錢

釜山急騰 實物 七十錢으로 急騰이나 日本內地米第二回豫想의 結果 買氣旺盛하야 市勢四十錢高

大邱硬勢 定期反撥로 賣 二十九圓 四等 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 十二圓八錢

木浦硬進 日本內地의 二年連續凶作을 豫想하고 實勢强調인데다가 定期高放으로日本內地側의 注文이旺盛하야 一般의 大上放을演한 唱은 五十錢高의 丸木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市場六感

株 第二上海事變을 彷彿케하는 上海事件이 突發 ▲幣制改革問題에이어 어떠한 事態가 展開될가? 輕視할수업는 重大問題 ▲東株重役問題로悲觀論이 잇는모양이오 百六十圓以上의 東新은 일이잇슬때마다 鮮被消으로되는모양 ▲新規材料가 업는限 目前은 軟弱市勢로 보는것이 一般의觀測 ▲上旬을 不勢로지난 市勢가 中旬이나 上旬될가? 硬軟果如何? 順序로서 反實로서 一高가잇슬뜻하나 흘가? ▲昨年이때는 東新이 百十九圓九十錢으로 떠러저든 때이다 지금은 百六十一圓이니 갑으로 四十圓이나 高位에잇는데 日産、綱管等은 昨年이때보다 二十圓가량下位

米 無材料로 揉合튼 市勢가 日本內地米 二回豫想一部發表 大減收를 듯고 今前場은 俄然 大上放 ▲當地二十八圓四十三錢으로再昨後引보다 六十丁高 ▲日本內地米 今年五千六、七百萬石收穫이라면 凶作市勢展開를難免 ▲豐作이라할수잇는 朝鮮米는 日本內地에서 歡迎바들것 ▲米穀自治管理案가튼 豐作對策에만 끌풀하고 朝鮮米를 虐待하라는 農林省 態가如何?

金融(十一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商品(十一日)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商品(十一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日本麥粉市勢◆ ◆시카고期麥◆ ◆紐育綿價◆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豆粕相場◆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一六五

朝鮮取引所證券員 아세아證券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ノ一 日生빌딍一·二號室 電話本局 四六四九 四七二四 九三八 六六 內地來 日本經濟日報 進呈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代金引換取扱 送料先方負擔

金銀白金 分析 賣買 金城商會 電話光化門二九三七番

金銀高價買入 金銀賣買合資會社 代表者 大盛守德 電話本局一三八〇番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黃金町四丁目)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 ◆算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